

Shean.T (션티)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인강) 대성마이맥

·현강) 대치 이강, 강남/대치 오르비, 서초/대치/분당 명인

·검토: Chong Hyun, Eun Gi, Hyun Jin, Jae Hwi, Jun Seo, Yun Cheol

·디자인/편집: Chae Hyeon, , Seong Gyun, Seung Mi

Hi Guys!

하이 가이드즈, 셉티입니다. KISS Logic Level 2입니다.

수능영어 중 난이도가 높았던 연도의 기출로(특히 11, 14B) KISS Logic 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2011~2015 수능이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은 물론이고 N수생 친구들도 본적이 많지 않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사전 지식 없이' 백지에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난이도는 '요즘' 수능 영어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허나 '수능' 기출이기에, 그 퀄리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국어, 수학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영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어휘는 더 어려웠던 때도, 쉬웠던 때도 있었겠지만, 문제를 푸는 그 '논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핵심 논리를 찾는 것이 수능영어의 핵심이었으며, 그 모든 것은 KISS Logic, 즉 AB와 PS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난이도 있는 수능 지문들로 저와 같이, '수능영어의 본질'이란 게 있다면 그 본질인 문제풀이 논리를 '가장 심플하고 일관되게' 학습해봅시다.

Level 2가 끝나면, 주간 KISS를 통해 '최근 6개년' 평가원 기출과 '비연계' 문제들에 KISS Logic을 적용해가며 '최근 기출', '생소한 비연계'까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성

① KISS Logic Level 2 Part. 1 AB (Day 1 ~ 6)

- 2011~2015학년도 평가원 문제 中 KISS Logic AB 문항들로 구성. (28문제)

② KISS Logic Level 2 Part. 2 PS (Day 7 ~ 12)

- 2011~2015학년도 평가원 문제 中 KISS Logic PS 문항들로 구성. (24문제)

③ KISS Logic Level 2 Part. 3 순서/문삽(Day 13 ~ 18)

- 2011~2015학년도 평가원 문제 中 ABPS 순서, 문삽 문항들로 구성. (24문제)

④ Special Part. 4

- 중간 난이도의 교육청 하프 모의고사 2회분

학습방법

① 셉티의 개념설명을 듣고(가이드북, KISS Logic Level 1 등) Day 하루 치에 해당하는 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 본다. AB 파트는 어떤 개념이 대립되는지 잡으려 하면서, PS 부분은 어떤 상황이 P이고, S가 나오는지 민감하게 읽으며 푼다.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지는 말자. 1, 2등급의 경우 쉬운 유형 1분~1분 30초, 어려운 유형 (빈칸, 문삽) 2분~3분을 추천하고, 3, 4등급 이하인 경우 쉬운 유형 1분 30초~2분, 어려운 유형 3~4분 정도 추천.

② 채점을 한다. 틀렸거나 애매했던 지문은 해설을 듣기 전 다시 한 번, 로직을 체크해보고, 또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사전이나 해설지를 참고하여 본인의 단어장에 적어두고 외운다.

③ 셉티의 해설 강의를 들으며 최대한 저 사고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한다. AB, PS의 소재와 구조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거의 외우다시피 해도 좋다. 해설하지 않은 지문도 해설지가 상세하니, SheanT's comment와, 'Logic 사고과정' comment 들부터 먼저 보면서, 어떤 사고과정으로 답이 나왔는지, KISS Logic을 점검하고, 이해하고, 체화한다.

④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보며, 셉티의 해석과 비교하고 교정한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해서 나만의 단어장에 적고 따로 외운다. '수능' 지문들이니 이럴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가? 등급이 낮을수록, 이 '어휘/해석' 챙기는 공부 시간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함을 명심하자. 이를 'workbook'으로 하면 가장 좋다.

해설 기호 설명

■ Shean.T's Comment

해당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하면 좋았을 방향, 태도.

■ 형광펜

AB, PS를 알 수 있기에 반응해야 할 Signal

■ 진한 단어

어휘 정리

■ 선지

- ① **A(not A)**: A쪽(A의 반대 쪽) 선지.
- ② **B(not B)**: B쪽(B의 반대 쪽) 선지.
- ③ **off**: 지문의 AB, PS로 grouping되지 않는 헛소리.
- ④ **반**: 해당 선지의 '반대 의미'가 정답.
- ⑤ **매**: 매력적인 오답(off로 인한).

■ AB PS는 하나의 지문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설지에 작성하는 AB PS가 꼭 '정답'은 아니기에, 잘 flexibility를 발휘하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도구, 프레임으로 해당 지문을 '이해' 했다는 겁니다.

■ Table of Contents

Part.1 AB P. 10 ~ P. 59

Part.2 PS P. 64 ~ P. 109

Part.3 순/삽 P. 114 ~ P. 159

Part.4 교육청 P. 164 ~ P. 219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Shear.T

KISS LOGIC Level 2 ■■

Part 1

AB

Part 1

Day 1

출처 2015.수능.18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difference between winners and losers is how they handle losing. Even for the best companies and most accomplished professionals, long track records of success are punctuated by slips, slides, and mini-turnarounds. Even the team that wins the game might make mistakes and lag behind for part of it. That's why the ability to recover quickly is so important. Troubles are ubiquitous. Surprises can fall from the sky like volcanic ash and appear to change everything. That's why one prominent scholar said, "Anything can look like a failure in the middle." Thus, a key factor in high achievement is bouncing back from the low points.

- ① 경영의 전문화는 일류 기업의 조건이다.
- ② 위기 관리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 ③ 합리적 소비는 필요와 욕구의 구분에서 비롯된다.
- ④ 폭넓은 인간 관계는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 ⑤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NOTE

출처 2013.수능.37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y is it difficult to find a runner who competes equally well in both 100-m and 10,000-m races? The primary reason is that our muscles contain two main types of muscle fibers, called slow and fast muscle fibers. Slow muscle fibers are muscle cells that can sustain repeated contractions but don't generate a lot of quick power for the body. They perform better in endurance exercises, like long-distance running, which require slow, steady muscle activity. Fast muscle fibers are cells that can contract more quickly and powerfully than slow muscle fibers but fatigue much more easily; they function best for short bursts of intense activity, like weight lifting or sprinting.

- ① reasons for runners to develop strong muscles
- ② differences between slow and fast muscle fibers
- ③ comparison of sprinting with long-distance running
- ④ necessity of building muscles for long-distance runners
- ⑤ relationship between muscle fibers and physical fatigue

NOTE

출처 2014.수능A.26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Large animals are actually less dangerous to hikers than smaller ones. Common sense tells us that we should avoid tigers, bears, and other large threatening animals. But smaller animals are actually more threatening than bigger animals. To overcome disadvantages of their size, small animals have developed useful weapons such as poison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wild. Each year, only a few people are attacked by tigers or bears, and most of these incidents are caused by the people themselves. However, more people are killed by bites from small poisonous snakes than by these large animals. Even more people lose their lives from allergic reactions to common bee stings. For these reasons, hikers should be careful about small dangerous creatures.

- ① How to Deal with Allergies
- ② Watch Out for Small Animals!
- ③ Animals: Human's True Friends
- ④ Animals Attack Human Villages!
- ⑤ Why Are Wild Animals Endangered?

NOTE

출처 2015.수능.20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 than by mere abstract study.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For example,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s,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and intuitions that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This learning by doing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For instance,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d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ecome recognizable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 ① history of science education
- ② limitations of learning strategies
- ③ importance of learning by doing
- ④ effects of intuition on scientific discoveries
- ⑤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science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첫 문장에서 위너와 루저..라고 명확히 AB를 제시해주니 AB를 잡고,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을 지문 중간, 마지막에서 캐치해서 답과 빠르게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

A: 루저, 실패 극복을 잘 못함 < B: 위너, 실패 극복을 잘함

Vocabulary

1. handle	9. bounce back	1. 다루다	9. 다시 회복하다
2. accomplished	10.	2. 뛰어난	10.
3. track record	11.	3. 실적	11.
4. be punctuated by	12.	4. ~로 끊기다, 점철되다	12.
5. turnaround	13.	5. 반전	13.
6. lag behind	14.	6. 뒤처지다	14.
7. ubiquitous	15.	7. 어디에나 있는	15.
8. prominent	16.	8. 저명한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수능.18

One difference between winners(B) and losers(A) is how they **handle losing**.

승자와 패자의 한 가지 차이는 /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다.

선티 쉽다. difference between을 보자마자 뻔! 누구와 누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지 A,B로 표시해주고(필자는 승자에 대한 얘기를 할테니 위너에 B를 해주는 센스)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집중하자.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Even for the best companies and most **accomplished** professionals, long **track records** of success **are punctuated by** slips, slides, and mini-**turnarounds**. Even the team that wins the game might make mistakes and **lag behind** for part of it.

심지어 최고의 회사와 가장 성공한 전문가에게도, / 긴 성공의 실적은 점철되어 있다 / 실수, 미끄러짐, 그리고 작은 호전들로. / 심지어 경기를 이기는 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 부분적으로는 뒤처질 수도 있다.

선티 이 두 문장은 for example만 없을 뿐이지 예시라는 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실패를 한다’는 것.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습 넘어가는 게 중요.

That’s why the ability to recover quickly(B) is so important.

이것이 바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다.

선티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인식. 어떻게? ‘That’s why’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표현과, important라는, ‘중요하다’는 표현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 ‘ability to recover quickly’가 B구나.

Troubles are **ubiquitous**. Surprises can fall from the sky like volcanic ash and appear to change everything. That’s why one **prominent** scholar said, “Anything can look like a failure in the middle.”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 놀라운 일이 화산재처럼 하늘에서 똑 떨어질수도 있고 / 모든 걸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이것이 바로 저명한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이다, / “중간 과정에서는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

선티 ‘구체적인’ 부분이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구나’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 특히 저런 ‘인용’ 부분은 당연히 글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감사하며 넘어가야 한다.

Thus, a key factor in high achievement is **bouncing back from the low points**.

따라서, 높은 성취의 핵심 요소는 저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선티 ‘Thus’와 ‘key factor’ 등의 표현을 통해 B문장임을 확인, 집중해서 ‘bouncing back from the low points’가 B임을 확인하며 지문 이해 마무리. 승자는 ‘실패 극복을 잘한다’라는 B를 다시 확인하며, 정확히 이를 표현한 **5번을 고르자!**

- ① 경영의 전문화는 일류 기업의 조건이다. (off)
- ② 위기 관리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off)
- ③ 합리적 소비는 필요와 욕구의 구분에서 비롯된다. (off)
- ④ 폭넓은 인간 관계는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off)
- ⑤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B)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이 지문은 수능영어에서는 레어하게도, not A but B 지문이 아니라, A vs. B의 '대등 비교'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설문보다는 설명문! Feat. 국어 2012학년도 6평 비문학 지문이 떠올랐다면 국어 기출을 열심히 학습한 학생. 결국 국어 영어는 같은 것임을, 근데 외국어인 영어는 더 심플할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하자.

A: 지근섬유, 장거리 달리기 vs. B: 속근섬유, 단거리 달리기

Vocabulary

1. compete in	9.	1. ~에서 경쟁하다	9.
2. contain	10.	2. 포함하다	10.
3. fiber	11.	3. 섬유	11.
4. contraction	12.	4. 수축	12.
5. endurance exercise	13.	5. 지구력 운동	13.
6. fatigue(v)	14.	6. 피로해지다	14.
7. sprinting	15.	7. 단거리 달리기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수능.37

Why is it difficult to find a runner who **competes** equally well in both 100-m and 10,000-m races? The primary reason is that our muscles **contain** two main types of muscle **fibers**, called **slow(A)** and **fast(B)** muscle fibers.

왜 달리기 선수를 찾기 어려울까 / 100m와 10,000m 경주 둘 다 잘하는? / 가장 주요한 이유는 / 바로 우리의 근육이 두 개의 주요한 근섬유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불리는.

선티 왜 둘 다 잘하는 선수가 없을까? '이유'를 물어보는구나. 근데 '둘 다'에 꽂혀야 한다. 두 개를 말하는 걸 보니 AB인가? 하고 다음 문장의 'two' main types를 보자마자 환장해야 한다. 두 개가 나오는지. AB해야지. 무엇이 더 좋다는 우위의 얘기가 아니고 단순 '비교'이므로 편하게 먼저 나온 slow 근섬유를 A라 하고 그 특징에 A를, fast 근섬유를 B라고 하고 그 특징에 B라고 표시하자. (해석할 땐 그냥 느린 근섬유, 빠른 근섬유라고 하면 된다. 이걸 '지근섬유', '속근섬유'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국어 기출 덕후면 또 모르지만..)

Slow muscle fibers(A) are muscle cells that can sustain repeated **contractions(A)** but don't generate a lot of quick power(B) for the body. They perform better in **endurance exercises(A)**, like long-distance running, which require slow, steady muscle activity.

지근섬유는 근육 세포이다 / 지근섬유는 반복 수축을 지속할 수 있으나 신체에 다량의 빠른 힘을 내지 못한다. / 지근섬유는 지구력 운동에서 더 뛰어나다, / 느리고 꾸준한 근육 활동을 요구하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선티 지근섬유의 특징(보통 명사겠지)에 빠르게 A를 치며 나간다. '반복 수축' '지구력' '장거리' 등이 되겠다.

Fast muscle fibers(B) are cells that can **contract more quickly and powerfully(B)** than slow muscle fibers but **fatigue(B)** much more easily; they function best for **short bursts of intense activity(B)**, like weight lifting or **sprinting**.

속근섬유는 세포들이다 / 지근섬유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수축할 수 있는 / 하지만 훨씬 더 쉽게 피로해지는데; / 속근섬유는 강력한 활동의 짧은 분출에 최적이다, / 웨이트나 단거리 달리기 같은.

선티 역시 속근섬유의 특징에 B를 치며 빠르게 마무리 한다. '빠르고 강력' '피로' '짧고 강력' 등. 이 지문은, 대부분의 수능영어 지문이 A<B인데 반해, A vs. B로 대등 비교로 끝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필자가 이 지문에서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중 무언가를 더 '강조'하는 것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 '대등 비교'라 할 수 있겠다. **2번 선지의 differences를 보자마자 아, AB의 객관적인 차이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구나, 하고 답으로 골라야 한다.**

- ① reasons for runners to develop strong muscles(off)
달리기 선수들이 강력한 근육을 키우는 이유
- ② differences between slow and fast muscle fibers(A vs. B)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사이의 차이
- ③ comparison of sprinting with long-distance running(off)
단거리와 장거리 달리의 비교
- ④ necessity of building muscles for long-distance runners(A)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을 위한 근육을 키울 필요성
- ⑤ relationship between muscle fibers and physical fatigue(off)
근섬유와 신체적 피로 사이의 관계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②번.

쉽지만 AB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지문. 첫 문장부터 큰 동물(A) vs. 작은 동물(B)로 AB를 나눈 뒤 그 뒤 '뒤집지 않나' 확인만 하며 내려와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야 한다.

A: 큰 동물이 위험하다는 통념 < B: 작은 동물이 위험하다는 필자

1. common sense	9.	1. 상식	9.
2. threatening	10.	2. 위협적인	10.
3. overcome	11.	3. 극복하다	11.
4. an incident	12.	4. 사건	12.
5. allergic reaction	13.	5. 알레르기 반응	13.
6. creature	14.	6. 생명체	14.
7.	15.	7.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4.수능A.26

Large animals(A) are actually **less** dangerous to hikers **than** smaller ones(B).

큰 동물은 사실 등산객에게 덜 위험하다 / 더 작은 동물들보다.

선티 첫 문장부터 아주 감사한 지문. Less than에서 바로 '비교'를 느끼고, AB 구나, 둘 중에 뭘 더 필자는 강조하려 하는 것이지? 작은 동물. B.

Common sense(A) tells us that we should avoid tigers, bears, and other large **threatening** animals(A). **But** smaller animals(B) are actually **more** threatening **than** bigger animals(A).

상식에 따르면 우리는 호랑이, 곰, 그리고 다른 크고 위협적인 동물을 피해야 한다. / 하지만 더 작은 동물들이 사실 큰 동물들보다 더 위협적이다.

선티 common sense(상식)을 보자마자 신나서 바로 A. 상식은 큰 동물을 피해야 한다는 것. 집중해서 큰 동물을 A로 잡는다. A 나오고 But 때리니 다음은 당연히 B문장. But 문장이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라는 것 인지! 사실 작은 동물(B)이 더 위험하다는 게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 자, 지문의 B진술이 나왔으니, 뒤에서 이를 '뒤집지 않는 한' 이 얘기만 해야 한다. 무슨 얘기? 작은 동물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 나는 이 frame 속에서 이제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확인만 하면서 읽는 것이다.

To **overcome** disadvantages of their size, **small animals(B)** have developed useful weapons such as poison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wild. Each year, only a few people are attacked by **tigers or bears(A)**, and most of these **incidents** are caused by the people themselves. **However**, more people are killed by bites from **small poisonous snakes(B)** **than** by these large animals(A). Even more people lose their lives from **allergic reactions** to **common bee stings(B)**.

크기의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 작은 동물들은 독과 같은 유용한 무기를 개발하였다 / 야생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 매년, 소수의 사람들만이 호랑이나 곰에 의해 공격 받는다, /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사람들 자신에 의해 발생한다. /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독사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다 / 이런 큰 동물들보다. /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 일반적인 벌 쏘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선티 AB에 대한 '구체화.' AB만 때리며, 실제로 작은 동물이 더 위험하다는 거 구나- ^^ '확인'하는 정도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 빠르다.

For these reasons, hikers **should** be careful about **small dangerous creatures(B)**.

이러한 이유로, 등산객들은 작고 위험한 생명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선티 should라는 표현이 나왔기에, 역시 환장하며 중요한 B 문장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작은 동물을 조심하자는 같은 얘기네, 하며 그대로 2번으로 가면 되겠다. 사실 푸는 데 20초면 충분한 지문.

- ① How to Deal with Allergies(off)
알레르기에 대처하는 방법
- ② Watch Out for **Small Animals(B)**!
작은 동물을 조심하세요!
- ③ Animals: Human's True Friends(off)
동물: 인간의 진실한 친구
- ④ Animals Attack Human Villages!(off)
동물이 인간의 마을을 공격하다!
- ⑤ Why Are Wild Animals Endangered?(off)
야생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첫 문장부터 'better ~ than' 비교 표현으로 AB를 잡아주는, 그리고 그 후 twist(반전)도 없는 아주 감사하고 무난한 지문. 읽으며 이 AB가 혹시 나 바뀌나, '확인'만 하며 빠르게 지문 독해를 끝내고 답을 내야 한다.

A: 추상적 사고 < B: 직접 하는 것

Vocabulary

1. discipline	9. observation	1. 학문 분야	9. 관찰
2. abstract	10. recognizable	2. 추상적인	10. 인지할 수 있는
3. this is the case	11. identifiable	3. 사실이다	11. 식별 가능한
4. seemingly	12. particle	4. 겉보기에	12. 입자
5. philosophical	13. limitation	5. 철학적인	13. 한계
6. intuition	14.	6. 직관	14.
7. centrality	15.	7. 중심, 중요성	15.
8. relevance	16.	8. 적절성, 관련성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5.수능.20

Many **disciplines** are **better** learned by entering into the **doing(B)** than by mere **abstract** study(A). **This is often the case**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the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많은 학문이 직접 하기 시작하면서 더 잘 학습된다 / 단순한 추상적 공부보다. / 이는 종종 사실이다 / 겉보기에 더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가장 추상적인 학문에서도.

선택 첫 문장부터 역시 감사한, 이미 끝난 지문. Better than을 보고 알 수 있다. 필자는 추상적 공부보다 직접 하는 게 더 학문에 좋다는 것. 다음 문장의 'This is often the case'라는 표현은 '이는 종종 사실이다'라는 뜻으로, 앞 문장 AB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따라서 굳이 집중해서 읽으며 이해할 필요가 없다.

For example,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s, logic must be learned through the use of examples and actual problem solving(B). Only after **some time and struggle(B)** does the student begin to develop the insights and **intuitions** that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예를 들어, 철학 분야에서, 논리는 학습되어야 한다 / 예시와 실제 문제 해결을 사용해서. /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해야만이 학생은 통찰력과 직관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 이러한 사고 방식의 핵심과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 for example을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왜? 예시니까 이 앞에 대한, 즉 B 진술에 대한 예시겠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빠르게 훑는다. Only after 문장에서도 some time and struggle 정도만 B로 잡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구나-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시간 단축이 된다.

This learning by doing(B) is **essential** in many of the sciences. For instance, only after a good deal of **observation** do the sparks in the bubble chamber become **recognizable** as the specific movements of **identifiable particles**.

이러한 행동으로 학습하는 것은 많은 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 예를 들어, 충분한 관찰을 하고 나서야 거품 상자의 불꽃이 인지 가능하다 / 식별 가능한 입자의 구체적 움직임으로서.

선택 essential이라는 표현으로 해당 문장이 또 중요한 B문장이구나 파악. 원래의 B와 차이가 없다는 것 확인. 그 뒤 예시는 선택은 안 읽는다. 읽으나마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지. 답은 그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번!

- ① history of science education(off)
과학 교육의 역사
- ② limitations of learning strategies(off)
학습 전략의 한계
- ③ importance of learning by doing(B)
실천(함으로써) 학습의 중요성
- ④ effects of intuition on scientific discoveries(off)
과학적 발견에 대한 직관의 영향
- ⑤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science(off)
철학과 과학의 차이

KISS LOGIC Level 2 ■■

Part 1

Day 2

출처 2015.9.22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extiles and clothing have functions that go beyond just protecting the body. Dress and textiles alike are used as a means of nonverbal communication. Obvious examples would be the use of uniforms to communicate a particular social role and the modern white wedding dress Western cultures use to mark this rite of passage. Both types of clothing communicate important information nonverbally to the onlooker. The female wearing the white dress is about to be married and change her status and role in society. The person in the uniform has some specialized function in society, such as police officer, nurse, or soldie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lothing visually communicates information about group membership and functions as an identity marker.

- ① educational functions of uniforms
- ② ways to diversify styles of clothing
- ③ gender differences in choosing clothing
- ④ different cultural norms of Western society
- ⑤ nonverbal communicative functions of clothing

NOTE

출처 2015.수능.22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some time in their lives, most people pause to reflect on their own moral principles and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ose principles, and they sometimes think about what principles people should have or which moral standards can be best justified. When a person accepts a moral principle, naturally the person believes the principle is important and well justified. But there is more to moral principles than that. When a principle is part of a person's moral code, that person is strongly motivated toward the conduct required by the principle, and against behavior that conflicts with that principle. The person will tend to feel guilty when his or her own conduct violates that principle and to disapprove of others whose behavior conflicts with it. Likewise, the person will tend to hold in esteem those whose conduct shows an abundance of the motivation required by the principle.

- ① Feeling Guilty? Check Your Self-Esteem First
- ② Do Not Let Your Moral Principles Change!
- ③ Moral Integrity: A Principle of Philosophy
- ④ How Do People Form Their Personalities?
- ⑤ Moral Principles: Guiding Our Conduct

NOTE

출처 2015.6.21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many years now, mediated entertainment such as TV and film has been able to stimulate our optical and auditory senses with sights and sounds. Some forms of new media, however, even engage our senses of touch and smell. The view the wearer of some special device sees is projected on the screen behind him. Wearers become immersed in the computerized scene and use the gloves to pick up and move simulated objects. Many virtual reality games and rides now allow audiences and players to feel sensations of motion and touch. New media may also include aromas, such as Disney’s “Soaring Over California” attraction at the California Adventure theme park, where audiences smell orange orchards and pine forests while enjoying a simulated hang-gliding experience across the countryside. Makers of emerging forms of entertainment will likely continue to experiment with ways they can simulate and manipulate reality by stimulating our senses.

- ① TV and Film: Blessing or Curse?
- ② How We Operate an Audio System
- ③ Seeing Is More Important Than Touching
- ④ “Soaring Over California,” a Theme Park Adventure
- ⑤ New Mediated Entertainment: Stimulate More Senses!

NOTE

출처 2015.6.22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ently,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laughter is not just to communicate that one is in a playful state, but to actually induce this state in others as well. According to this view, the peculiar sounds of laughter have a direct effect on the listener, inducing positive emotional arousal that mirrors the emotional state of the laugher, perhaps by activating certain specialized brain circuits. In this way, laughter may serve an important biosocial function of coupling together the positive emotions of members of a group and thereby coordinating their activities. This would explain why laughter is so infectious; when we hear someone laughing, it is almost impossible not to feel cheerful and begin laughing too.

- ① effects of laughter on others
- ② benefits of activating brain circuits
- ③ strategies for coordinating activities
- ④ negative aspects of emotional reactions
- ⑤ importance of grouping in communication

NOT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⑤번.

지문도 무난하고 매력적인 오답 선지도 없어 무난하지만, not only A but also B를 첫 두 문장에 걸쳐 표현한 것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나의 '해석력'과 가벼운 '논리력'으로, 어떤 형태로 말을 해도 그게 결국 not A but B라는 거구나~ 내 프레임으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

A: 옷의 신체 보호 기능 < B: 옷의 비언어적 기능

1. textile	9. identity marker	1. 옷감	9. 신분을 표시하는 것
2. nonverbal	10.	2. 비언어적인	10.
3. obvious	11.	3. 분명한	11.
4. rite of passage	12.	4. 통과의례	12.
5. onlooker	13.	5. 보는 사람, 구경꾼	13.
6. be about to V	14.	6. 막 ~하려 하다	14.
7. status	15.	7. 지위, 신분	15.
8. specialized	16.	8. 전문화된, 특화된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9.22

Textiles and clothing have functions that **go beyond just** protecting the body(A). Dress and textiles alike are used as a means of **nonverbal communication**(B).

옷감과 옷은 단지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옷과 옷감 둘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선티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를 표현한 것을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지문. 첫 문장의 go beyond just에 주목해야 한다. 해석을 하면 '단지 ~을 넘어선'인데, 생각을해보자 생각을. 한국어로 '선티는 수능영어를 단순히 해석하는 걸 넘어선 것을 가르쳐.' 이러면 '뭘 가르치는데?'가 나오지 않을까? 이 경우 '해석'은 AB중에? A. 마찬가지로. 지문의 첫 문장도 A문장인 것이고, 정확히는 '신체 보호'가 A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음 문장에 B가 나오겠고, 기대하면서 읽어보니 역시나 옷의 B기능이 나온다. 바로 '비언어적(nonverbal)' 의사소통. 이 첫 두 문장에서 AB를 확실히 잡고 가느냐 아니냐는 천차만별이다.

Obvious examples would be the use of uniforms to communicate a particular social role and the modern white wedding dress Western cultures use to mark this **rite of passage**. Both types of clothing communicate important information **nonverbally**(B) to the **onlooker**.

분명한 예는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전달하기 위한 제복의 사용과 / 현대적인 흰색 웨딩드레스일 것이다 / 이 (결혼) 통과의례를 기념하기 위해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 두 종류의 옷은 보는 사람에게 비언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선티 B에 대한 예시니까, 선티는 거의 안 읽다시피 했다. 두번째 문장의 nonverbally 정도만 B로 확인. 그 외 읽으면 시간 낭비. 오히려 이 문장이 중요한 건, example 문장이기에, 이 '앞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파악하는 것.

The female wearing the white dress **is about to** be married and change her **status** and role in society. The person in the uniform has some **specialized** function in society, such as police officer, nurse, or soldier.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은 곧 결혼할 것이고 / 사회에서 그녀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다. / 제복을 입은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전문화된 기능을 갖는다 / 경찰, 간호사 또는 군인처럼.

선티 결혼, 경찰.. 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역시 '구체적 부연설명' 부분이구나 파악하고, 속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 빠르게 읽고 있으면 안 돼!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lothing **visually communicates**(B) information about group membership and functions as an **identity marker**.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다 / 옷은 집단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 신분의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선티 마지막 부분이고, therefore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장임을 인식. 마지막 집중. 아, 옷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구나. '비언어적으로'가 B였지? 항상 연결하면서. '시각적=비언어적.' 이해되나? 따라서 visually도 B. 그대로 선지 확인해보니 B를 드러낸 선지는 5번 하나!

- ① **educational functions of uniforms**(off)
제복의 교육적 기능
- ② **ways to diversify styles of clothing**(off)
옷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
- ③ **gender differences**(off) in choosing clothing
옷 선택에서의 성별 차이
- ④ **different cultural norms**(off) of Western society
서구 사회의 상이한 문화적 규범
- ⑤ **nonverbal**(B) communicative functions of clothing
옷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not only A but also B의 논리를 지문의 전반(A), 그리고 후반(B)에 걸쳐 보여주는 지문. 중반까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but부터 집중해 B를 잡는 게 핵심. 지문 중반까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다. '도덕 원칙'에 대한 얘기구나~ 읽다가 But!!!부터 집중해서 But 앞뒤의 AB를, 그리고 against와 toward의 대립성을 느끼며 AB를 잡는 게 핵심.

A: 원칙에 반하는 행위, 사람들 < B: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 사람들

Vocabulary

1. reflect on	9. conflict with	1. ~에 대해 성찰하다	9. ~와 충돌하다
2. moral principle	10. feel guilty	2. 도덕 원칙	10.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3. practical	11. violate	3. 실제적인	11. 위반하다
4. implication	12. disapprove of	4. 의미, 함축	12. 반대하다
5. justify	13. hold in esteem	5. 정당화하다	13. 존경하다(=respect)
6. moral code	14. an abundance of	6. 도덕률	14. 풍부함
7. be motivated to N	15. moral integrity	7. ~로 이끌리다	15. 도덕적 청렴함
8. conduct(n)	16.	8. 행동, 행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5.수능.22

At some time in their lives, most people(A) pause to **reflect on** their own **moral principles** and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ose principles, and they sometimes think about what principles people should have or which moral standards can be best **justified**.

삶의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자신의 도덕 원칙과 그 실제 의미에 대해 성찰한다, / 그리고 어떤 원칙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거나 / 어떤 도덕 기준이 가장 잘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생각한다.

선택 첫 문장이 길고, 윤리 원칙에 대해 얘기를 하니 어려운데, 'most people'을 보고 '아 A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잡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vs. 필자'니까. A 얘기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해하려 시간 쓸 필요가 없다. 저 긴 문장을, '아 사람들이 윤리 원칙에 대해 생각하는구나'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된다. 첫 문장이 길고 이해 안 된다고 패닉되고 그 뒤부터 튕기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

When a person accepts a moral principle, naturally the person(A) believes the principle is important and well justified.

누군가 도덕적 원칙을 받아들일 때, / 자연스레 그 사람은 그 원칙이 중요하고 잘 정당화 된다고 믿는다.

선택 '앞문장 보충설명'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도덕 원칙을 수용하면(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든지.), 그걸 중요하다고 믿는구나. 당연한 얘기.

But there is more to moral principles than that(A).

하지만 도덕 원칙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선택 역시, 가장 중요한 문장을, but을 통해, 가장 짧게 말하고 있다. 또한 more than까지 있으니 이 문장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순간, 이 앞의 윤리(도덕) 원칙에 대한 A의 견해였고, 이 뒤가 필자의 견해 즉 B라는 frame화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뒤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윤리 원칙에 대한 입장은 뭐지?에 온 집중을 해야 한다!

When a principle is part of a person's **moral code**, that person is strongly **motivated toward** the **conduct(B)** required by the principle, and **against** behavior that **conflicts with that principle(A).**

하나의 원칙이 누군가의 도덕률의 일부일 때, / 그 사람은 그 원칙이 요구하는 행위에 강하게 이끌린다, / 그리고 그 원칙과 충돌하는 행동에는 반감이 든다.

선택 이 문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이 문장이 'B'를 무엇인지 딱 말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다. 이럴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A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앞 문장에서 했으면 그 다음 문장은 'B'를 말해주겠지만, 난 B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아야지 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보니 toward와 against가 보이고, 이 둘의 '대립성'을 느끼며 AB를 잡으려 해야 한다. 행실(conduct)에는 내 도덕원칙에 향하는(toward, B) 것도 있고 반하는(against, A) 것도 있다는 게 보인다. 아, 필자는 윤리 원칙의 '행실(행위)'를 중시하는구나! (이 또한 conduct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무용지물. 결국은 단어.)

The person will tend to **feel guilty(P)** when his or her own **conduct violates** that principle(not B) and to **disapprove of** others whose behavior conflicts with it. Likewise, the person will tend to **hold in esteem** those whose conduct shows **an abundance of the motivation required by the principle(B).**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 자신의 행동이 그 원칙을 어길 때 / 그리고 그 원칙과 충돌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존경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 그 원칙이 요구하는 풍부한 동기를 보여주는 행동의 사람들.

선택 읽으며 아 'conduct'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또 막 세부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다. 선지에서는 윤리 원칙에서 conduct가 중요하다는 고르면 되지, 이거의 구체적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대로 답은 5번!**

- ① Feeling Guilty? Check Your Self-Esteem First(off)
죄책감을 느끼나요? 자존감을 먼저 점검하세요.
- ② Do Not Let Your Moral Principles Change!(off)
도덕 원칙이 바뀌지 않게 하세요!
- ③ **Moral Integrity: A Principle of Philosophy**(off, 매)
도덕적 청렴함: 철학의 원리
- ④ How Do People Form Their Personalities?(off)
사람들은 어떻게 성격을 형성하는가?
- ⑤ **Moral Principles: Guiding Our Conduct**(B)
도덕 원칙: 행위의 인도자(Shean.T의 의역)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⑤번.

첫 두 문장을 통해 오감의 AB를 빠르게 잡고, 마지막까지는 반전이 없나 스키밍하며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지문.

1. mediated	9. emerging	1. 매개된	9. 새롭게 등장하는
2. optical	10. manipulate	2. 시각의, 광학의	10. 조작하다
3. auditory	11.	3. 청각의, 청력의	11.
4. engage	12.	4. ~에 관여하다	12.
5. project(v)	13.	5. 비추다, 투사하다	13.
6. immersed in	14.	6. ~에 깊이 빠진	14.
7. soar	15.	7. 솟아오르다	15.
8. attraction	16.	8. 명물, 인기명소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6.21

For many years now, **mediated** entertainment such as TV and film has been able to stimulate our **optical** and **auditory** senses with sights and sounds(A). Some forms of new media, **however**, even **engage** our senses of touch and smell(B).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TV와 영화 같은 매체 오락은 / 볼거리와 소리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할 수 있었다. / 하지만, 몇몇 형태의 새로운 매체는 / 우리의 촉각과 후각에도 관여한다.

선티 첫 문장에서는 ‘미디어가 시청각과 관련이 있군’ 정도 파악. 다음 문장의 however를 보고 딱 집중. 근데 심지어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 촉각/후각과도. 이 두 문장도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사실상 not only A but also B ‘논리’구나 파악하는 게 아주아주아주 중요하다. ‘예전 미디어=시청각=A’ ‘최신 미디어=촉각후각=B.’ 처음에 이를 잡고 가면 이 뒤는 마지막까지 그냥 속 확인만 하는 거고, 이를 못 잡으면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다 휩쓸리는 거고. 뒤에 또 역접이 있지 않는 한 이 지문은 ‘최근 미디어는 촉각 후각을 자극함’이라는 것만 얘기해야 한다.

The view the wearer of some special device sees is **projected** on the screen behind him. Wearers become **immersed in** the computerized scene and use the gloves to pick up and move simulated objects. Many virtual reality games and rides now allow audiences and players to feel sensations of motion and touch(B). New media may also include aromas(B), such as Disney’s “**Soaring Over California**” **attraction** at the California Adventure theme park, where audiences smell(B) orange orchards and pine forests while enjoying a simulated hang-gliding experience across the countryside.

어떤 특수 장치를 착용하는 사람이 보는 광경이 /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에 투사된다. / 장치를 착용한 사람들은 컴퓨터로 구현된 장면에 몰입하게 되고, / 가상의 물체를 집어 들고 움직이기 위해 장갑을 사용한다. / 많은 가상현실 게임과 탈것들은 이제 관객들과 이용자들에게 움직이는 느낌과 만지는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 / 새로운 매체는 또한 향기를 포함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모험 테마 파크에 있는 디즈니 ‘Soaring Over California’처럼, / 그곳에서 관객들은 오렌지 과수원과 소나무 숲의 냄새를 맡는다 / 전원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행글라이딩 체험을 즐기는 동안.

선티 B를 언급했으니, B를 부연 설명해줘야겠지? 그 부연 설명 부분이라는 걸 파악하고, 언제 끝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길다. 너무 감사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길어지니까. 팁이 있다면 뒤를 속 보니 ‘디즈니 어쨌고..’ 나오는 것도 구체적인 예시이니 계속 B 부연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속속 점핑하며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motion and touch’ ‘aroma’ 등에서 아촉각 후각 맞네 ㅎㅎ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이 긴 부연을 빠르게 집중해서 읽으면 안 된다고!!!

Makers of **emerging** forms of entertainment will likely continue to experiment with ways they can simulate and **manipulate** reality by stimulating our senses(B쪽).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오락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 그들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현실을 시뮬레이션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티 마지막 문장이니 나름 B를 정리해주지 않을까? 하고 보니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할 거라고 ‘두리몽실하게’ 마무리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필자가 말하는 감각도 ‘후각, 촉각’임을 눈치 채며, 글을 마무리하고 선지를 본다. **5번 선지 또한 ‘후각, 촉각’을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라, more을 통해 이를 예들려 표현하고 있고, 이를 포착하여 답으로 고른다!**

- ① TV and Film: Blessing or Curse?(off)
TV와 영화: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 ② How We Operate an Audio System(off)
오디오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
- ③ Seeing(A) Is More Important **Than** Touching(B)(반)
보는 것이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④ “Soaring Over California”, a Theme Park Adventure(off)
“Soaring Over California”, 테마 파크 모험
- ⑤ **New** Mediated Entertainment: Stimulate More Senses(B)!
새로운 매체에 의한 오락: 더 많은 감각을 자극하라!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첫 문장부터 너무 대놓고 not only A but also B를 해주니, 역시 1컷 100 이구나 느껴지는 주제 문제. 웃음에 대한 AB를 빠르게 잡고, 그 뒤는 B를 부연하는구나~를 'This'라는 지시어를 통해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B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infectious를 잡으며 30초 안에 푸셔야 한다.

A: 웃음의 즐거운 상태 전달 기능 < B: 웃음의 즐거운 상태 전염 기능

Vocabulary

1. playful	9. coordinate	1. 명량한	9. 조율하다
2. induce	10. infectious	2. 유도하다	10. 전염되는
3. peculiar	11.	3. 이상한, 독특한	11.
4. arousal	12.	4. 자극	12.
5. activate	13.	5. 활성화시키다	13.
6. brain circuit	14.	6. 뇌 회로	14.
7. biosocial	15.	7. 생물 사회적인	15.
8. couple(v)	16.	8. 결합하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6.22

Recently,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laughter is **not just** to communicate that one is in a **playful state(A)**, **but** to actually **induce** this state in others(B) as well.

최근에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 웃음의 목적이 어떤 사람이 즐거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 실제로 이런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도한다고.

선택 첫 문장에 핵심 시그널이 있으니 지문의 B를 확실히 파악하자. not only but also에서 only자리는 여러 부사로 대체 가능하고, 그 중 just가 가장 많이 쓰인다. ‘웃음이라는 게 그냥 즐거운 상태(A)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상태를 ‘유도(B)’ 하는 게 진짜 목적이구나.’ 이 지문은 뒤에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여기서 끝난거다. 계속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만 해야 한다니까?

According to **this view(B)**, the **peculiar** sounds of laughter have a direct effect on the listener, inducing positive emotional **arousal** that mirrors the emotional state of the laugher, perhaps by **activating** certain specialized **brain circuits**. **In this way(B)**, laughter may serve an important **biosocial** function of **coupling** together the positive emotions of members of a group and thereby **coordinating** their activities.

이 관점에 따르면, 웃음의 특이한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 긍정적인 감정적 자극을 유도해내면서 / 웃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 아마도 어떤 특수한 뇌 회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 이런 식으로, 웃음은 중요한 생물 사회학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모른다 / 어떤 집단 구성원들의 긍정적 감정을 결합시키고, / 그럼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선택 선택은 이 부분을 거의 안 읽다시피 했다. 문장의 시작이 각각 this view, this way인데, 이 관점과 이 방식이 다 'B'겠지 뭘. 구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This would explain why laughter is so **infectious(B)**; when we hear someone laughing, it is almost impossible not to feel cheerful and begin laughing too.

이것은 웃음이 왜 그렇게 전염성이 있는지를 설명해줄 것이다; / 우리가 누군가가 웃는 것을 들을 때, / 유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웃기 시작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 This is why 즉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B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해주네. ‘전염성이 있다(infectious).’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이 전염된다는 것이 필자의 B네. **답은 그대로 1번으로!** 전염성이 있다 할 때 ‘contagious’도 평가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의어이니 꼭 챙겨둡시다.

① effects of laughter on others(B)

다른 이들에 대한 웃음의 효과

② benefits of activating brain circuits(off)

뇌 회로 활성화의 이익

③ strategies for coordinating activities(off)

활동 협동을 위한 전략

④ negative aspects of emotional reactions(off)

감정적 반응의 부정적 양상

⑤ importance of grouping in communication(off)

의사소통에 있어 그룹으로 나누기의 중요성

KISS LOGIC Level 2 ■■

Part 1

Day 3

출처 2013.9.45

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of us believe that amnesia, or sudden memory loss, results in the inability to recall one's name and identity. This belief may reflect the way amnesia is usually portrayed in movies, television, and literature. For example, when we meet Matt Damon's character in the movie *The Bourne Identity*, we learn that he has no memory for who he is, why he has the skills he does, or where he is from. He spends much of the movie try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However, the inability to remember your name and identity is exceedingly rare in reality. Amnesia most often results from a brain injury that leaves the victim unable to form new memories, but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intact.



While media often depict amnesia as a failure to (A) past memories, especially one's identity, most cases of amnesia actually leave the sufferers unable to (B) new memories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undamaged.

- | (A) | (B) |
|-------------|-----------------|
| ① integrate | construct |
| ② integrate | rearrange |
| ③ retrieve | dismiss |
| ④ retrieve | construct |
| ⑤ conceal | rearrange |

NOTE

출처 2015.6.40

2.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 ant turns right, left, and moves ahead over a sandy hill. How can we explain the complexity of the path it chose? We can think up a sophisticated program in the ant's brain, but it does not work. What we have overlooked is the ant's environment. The ant may be following a simple rule: get out of the sun and back to the nest. Complex behavior does not imply complex mental strategies. The same holds for humans. The apparent complexity of a man's behavior over time is largely a reflection of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in which he finds himself. People adapt to their environments much as gelatin does; if you wish to know what form it will have when it solidifies, study the shape of the mold that holds the gelatin. To understand behavior, one has to look at both the mind and the environment.

* gelatin: 젤라틴, 정제한 아교



Although we tend to (A) complex behavior with complex mental operations, (B)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as wel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uch behavior.

- | (A) | (B) |
|-------------|---------------------|
| ① associate | genetic |
| ② associate | environmental |
| ③ identify | psychological |
| ④ replace | psychological |
| ⑤ replace | environmental |

NOTE

출처 2015.9.40

3.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perts have found that reading classical texts benefits the mind by catching the reader's attention and triggering moments of self-reflection. The brain activity of volunteers was monitored as they read classical works. These same texts were then "translated" into more straightforward, modern language and again the readers' brains were monitored as they read the words. Scans showed that the more challenging prose and poetry set off far more electrical activity in the brain than the more pedestrian versions. Scientists were able to study the brain activity as it responded to each word and record how it lit up as the readers encountered unusual words, surprising phrases or difficult sentence structures. This lighting up lasts long enough to shift the brain into a higher gear, encouraging further reading.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reading the more challenging version of poetry, in particular, increases activity in the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helping the readers to reflect on and reevaluate their own experiences in light of what they have read. The academics said this meant the classics were more useful than self-help books.

Original versions of classical texts are helpful to readers because they contain (A) language that inspires further reading and (B) readers' self-reflection.

- | (A) | (B) |
|------------------|------------------|
| ① challenging | distorts |
| ② demanding | activates |
| ③ comprehensible | increases |
| ④ difficult | hinders |
| ⑤ accessible | stimulates |

NOTE

출처 2013.6.45

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art is creation, regardless of how closely the imitation approximates the original. Even the most rigorous attempt to create an absolute likeness is ultimately selective. Doing a portrait, for example, the artist may ask the subject to look serious, not smile — selecting a certain aspect of the person. We know Mona Lisa Giaconda, the subject of the most famous portrait in the world, through her mysterious smile; but we will never know what the entire person was like. The treasure of art, however, is that its reality lives forever. The final product is really an addition to reality, not simply a way of totally reproducing it. The artist always contributes something new, something that never was put together in precisely that way before. Leonardo's Mona Lisa is not Mona Lisa. The latter has long since gone to her reward; the former will never die.

Every work of art, no matter how precisely it (A) the original, is not a mere reproduction, but a unique creation that exists on its own and never (B).

- | (A) | (B) |
|---------------|----------------------|
| ① reveals | compromises |
| ② imitates | perishes |
| ③ illustrates | returns |
| ④ recalls | stands alone |
| ⑤ verifies | goes unnoticed |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항상 얘기하지만 요약은 요약문만 읽고도 답이 얼추 나온다. 특히 while, past, new를 통해 기억상실증의 통념이 A, new가 B, 정도 겠구나 감을 잡고 지문을 통해 '확인'만 하면 된다.

A: 기억상실증은 과거 기억을 회상 못하는 것 < **B:** 기억상실증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 못하는 것

Vocabulary

1. amnesia	9. dismiss	1. 기억상실(증)	9. 일촉즉다, 없애다
2. inability	10. conceal	2. 무능력	10. 숨기다, 감추다
3. reflect	11.	3. 반영하다	11.
4. portray	12.	4. 묘사하다, 그리다	12.
5. exceedingly	13.	5. 대단히, 엄청나게	13.
6. intact	14.	6. 손상되지 않은	14.
7. integrate	15.	7. 통합하다	15.
8. rearrange	16.	8. 재정리하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3.9.45(65%)

While media often depict amnesia as a failure to (A) past memories(A), especially one's identity, most cases of amnesia actually leave the sufferers unable to (B) new memories (B)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undamaged.

매체가 종종 기억 상실증을 과거의 기억,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회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 대부분의 기억 상실증은 사실 (기억 상실증을) 앓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억을 구성하지 못하게 한다 / 대부분의 과거 기억은 온전히 유지한 채.

선택 요약문 먼저 읽는다. While을 보자마자 사실 바로 이 지문은 not A but B겠구나 감이 와야 한다. 미디어(A)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기억상실증이 과거 기억을 A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내 생각에) 기억상실증은 새로운 기억을 B하지 못하는 거임 ㅇㅇ. 사실 이미 A, B 둘다 '기억하다' 정도의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지문을 통해 이를 확인만 하자.

Many of us believe(A) that amnesia, or sudden memory loss, results in the inability to recall one's name and identity(A). This belief(A) may reflect the way amnesia is usually portrayed in movies, television, and literature.

많은 우리는 믿는다 / 기억상실증, 즉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은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생각해 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 이러한 믿음은 기억상실증이 보통 묘사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문학에서.

선택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A를 제시한다. Many of us라는 표현을 통해 기억상실증에 대한 통념 제시. 내 이름이나 정체성 기억 못하는 게 A. 이제 뒤에 역접, B가 어딴을까 집중하며 내려가면 된다.

For example, when we meet Matt Damon's character in the movie The Bourne Identity, we learn that he has no memory for who he is, why he has the skills he does, or where he is from. He spends much of the movie try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예를 들어, 우리가 The Bourne Identity라는 영화에서 Matt Damon의 인물을 만나면, / 우리는 그가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혹은 자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 그는 영화 속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애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선택 중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for example 부분이 'A'의 예시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 A를 제시하고 나온 예시니까. 즉, 이 부분을 거의 '안 읽다시피' 하는 게 중요!!!

However, the inability to remember your name and identity(A) is **exceedingly rare** in reality. Amnesia most often results from a brain injury that leaves the victim unable to form new memories(B), but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intact(notA).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 기억상실증은 뇌 손상에서 가장 흔히 비롯된다 / 희생자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과거 기억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선택 드디어 However가 나왔다. 마지막 부분에서야 A를 까고, 드디어 B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한 것. However하면서 A는 드문 (rare)일이고, 새로운 기억을 형성(form)하지 못하는 게 문제(B)라고 하고 있다. 그대로 A는 '기억하다(recall)'에 가장 가까운 retrieve(회상하다)를, B는 'form(형성하다)'와 흡사한 뜻인 construct(구성하다)로 가면 된다! 답은 4번.

- | | |
|-------------|----------------------|
| (A) | (B) |
| ① integrate | construct(16%) |
| ② integrate | rearrange |
| ③ retrieve | dismiss |
| ④ retrieve | construct |
| ⑤ conceal | rearrange |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요약문부터 'Although' 'tend to V' 등을 통해 AB가 명확하게 제시됨을 파악하고, (A) 답은 상식적으로 이미 내고, (B)만 지문에서 단어를 확인한 뒤 끝내는 지문. 전형적인 평가원 요약 문제!

A: 복잡한 행동은 복잡한 정신 작용과 관련 < B: 복잡한 행동은 (외부) 환경과 관련

Vocabulary

1. complexity	9. mold(n)	1. 복잡성	9. 틀, 거푸집
2. sophisticated	10. associate A with B	2. 정교한, 복잡한	10. A를 B와 연관시키다
3. overlook	11. identify A with B	3. 간과하다	11. A와 B를 동일시하다
4. strategy	12. replace A with B	4. 전략, 계획	12. A를 B로 대체하다
5. apparent	13.	5. 겉보이는, 명백한	13.
6. reflection	14.	6. 반영, 성찰	14.
7. adapt to N	15.	7. ~에 적응하다	15.
8. solidify	16.	8. 굳어지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6.40

Although we **tend to** (A) complex behavior **with complex mental operations(A)**, (B) factors(B) **need to** be considered as wel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uch behavior.

우리는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적 작용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 그러한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선택 although와 tend to에서 바로 이 요약 문제도 not A but B 구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 작용과 A함 = A' '필자는 복잡한 행동에 B 요인이 중요하다 생각 = B'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체계화하여야 한다. 지문에서는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다. 현대 이 문제는 어렵다면 아쉬운 게(우리한테는 좋다! 답이 apparent 하니까 ㅎㅎ), 사실 A는 '상식적으로' '연관시킨다'는 동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고 맞다. 선지를 보니 associate가 있고.. 이미 1, 2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까지 끌어내고 지문에 들어가면 좋다.

An ant turns right, left, and moves ahead over a sandy hill. How can we explain the **complexity** of the path it chose?

개미는 모래 언덕 위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움직인다. / 개미가 선택한 길의 복잡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택 편히 읽으며, 개미가 복잡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 파악하면 된다.

We can think up a **sophisticated(A)** program in the ant's brain, **but it(A)** does **not** work. What we have **overlooked** is the ant's **environment(B)**.

우리는 개미의 뇌 속에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 그것은 효과가 없다. / 우리가 간과한 것은 개미의 환경이다.

선택 복잡성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우리(A)는 복잡한 프로그램(A)을 생각해내지만, 우리(A)가 간과한 것은 환경이다. A가 간과한 것이 환경이니 환경은? B. 이 글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제발. 필자는, 개미의 복잡성이 가능한 이유로 '환경'이 중요하다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 뒷부분들은 이를 부연 설명할 뿐이다. 역접이 없는 한. 어려운 대의 파악이나 빈칸이라면 역접이 있을 수 있는데, 요약 문제의 경우 이렇게 AB가 벌써 나온 시점에서 역접이 뒤에 또 있는 힘들다.

The ant may be following a **simple rule(B)**: get out of the sun and back to the nest. Complex behavior does **not imply complex mental strategies(A)**.

개미는 단순한 규칙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 즉 태양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 복잡한 행동이 복잡한 정신적 전략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 부연설명인 것 확인. complex mental strategies가 A임을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

The same holds for humans. The **apparent** complexity of a man's behavior over time is largely a **reflection** of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B)** in which he finds himself.

People **adapt to** their environments much as gelatin does; if you wish to know what form it will have when it **solidifies**, study the shape of the **mold** that holds the gelatin.

똑같은 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 인간의 행동은 / 주로 인간이 처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젤라틴의 방식과 유사하게 자신의 환경에 적응한다. / 젤라틴이 굳어질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알고 싶다면, / 그것을 담는 틀의 모양을 살펴보자.

선택 자 이 부분도 긴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해석하고 다 읽고 이해하려는 우매한 짓은 제발 하지 말자. 인간에게도 똑같다(The same holds for humans)를 보고, 'environment'라는 단어에 B를 때리면서, 이 부분을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인간의 복잡성도 환경에 기인한다.'

To understand behavior, one **has to** look at both the **mind(A)** and the **environment(B)**.

행동을 이해하려면, 정신과 환경을 둘 다 살펴봐야 한다.

선택 마지막 문장에서 'has to'를 보고, 아, 중요한 문장이군 인식하고 environment에 B를 치며 마무리. 바로 선지 2번과 연결!

(A) (B)

- ① **associate** genetic
- ② **associate** environmental
- ③ **identify** psychological
- ④ **replace** psychological
- ⑤ **replace** environmental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지문이 길고 쉽지 않지만 '요약' 문제다. 우리의 목표는 핵심어를 추려 내 지문 구조만 요약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요약문부터 키워드인 고전 텍스트를 필자는 B라고 보는구나, 그리고 이 B가 좋은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구나 잡으시고, (B)는 상식적으로 이미 선지를 좁힌 후 (A)만 지문에서 빠르게 확인하며 마무리 해야 한다. 다 읽고 있으면 안 되고!

A: 고전텍스트는 어려운 언어를 포함함 + **B:** 고전텍스트는 자아 성찰을 촉진함

Vocabulary

1. trigger	9. demanding	1. 촉발하다	9. 고된, 힘든
2. self-reflection	10. comprehensible	2. 자아 성찰	10. 이해가능한
3. straightforward	11. hinder	3. 쉬운, 간단한	11. 방해하다
4. challenging	12.	4. 어려운	12.
5. pedestrian(a)	13.	5. 평범한, 단순로운	13.
6. hemisphere	14.	6. (뇌의) 반구	14.
7. academics	15.	7. 교수(진)	15.
8. self-help book	16.	8. 자습서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5.9.40(63%)

Original versions of classical texts are **helpful** to readers because they contain (A) language that inspires further reading and (B) readers' self-reflection.

고전 텍스트의 원래 버전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 어려운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 이 언어는 심화 독서를 고취하고 자아 성찰을 활성화시킨다.

선티 요약문부터 본다. 고전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 '고전 텍스트'를 필자는 AB 중 무엇으로 바라보는가부터 정의해야 한다. 이럴 때 정말 초딩 단어 'helpful'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고전 텍스트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강조하는 B!!라고 보는 것이다. 이 고전 텍스트가 좋은 이유가 (A)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B)할 수 있다는 얘기. 역시 '상식적으로' (B)는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온다. 당연히 고전 텍스트는 좋다는 얘기가겠고, 따라서 자아 성찰을 더 '활성화, 촉진, 자극' 이런 느낌이겠지.. 자아성찰을 왜곡(distort), 방해(hinder)하진 않을 거 아니야. 2,3,5번으로 후보를 좁히고 나는 고전 텍스트가 '어떤 언어(A)'를 포함해서 이런 특성이 있는지, 지문에서 찾아야지, 라는 목적 의식을 확실히 한다.

선티 사실 (A) 선지들도 내가 '어휘력'과 PS가 잘 되어 있다면 바로 grouping이 가능하다. 1,2,4번은 '어렵다'는 P!!! 단어인 반면, 3,5번은 '쉽다'는 느낌의 단어이다. 아니 그럼.. (B) 선지가 2,3,5번밖에 안 되는데 (A) 선지 3,5번이 같은 거잖아. 답은 2번이겠네. 내가 어휘력과 로직이 있으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근데, 제발제발 'demanding'이 'hard'의 뜻이구나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했겠지. '요약' 문제가 사실상 '어휘' 문제라는 것 명심하자!

Experts have found that reading classical texts benefits the mind by catching the reader's attention and **triggering(B)** moments of **self-reflection**.

전문가들은 알아냈다 / 고전 텍스트를 읽는 것이 정신에 유익하다는 것을 /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자기 성찰의 순간을 촉발함으로써.

선티 살짝 특이하게도, 앞 부분에 요약 (B)가 나온다. 보통 대부분의 요약은 (A)가 지문 앞 쪽, (B)가 지문 뒤 쪽인데, 역시 100%라는 건 세상에 없으므로, 유념해두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측했던 것처럼, 자아성찰을 trigger(촉발)해준다.

The brain activity of volunteers was monitored as they read classical works. These same texts were then "translated" into more **straightforward**, modern language and again the readers' brains were monitored as they read the words.

지원자들이 고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뇌 활동이 추적 관찰되었다. / 그 후 이 동일한 텍스트가 더 쉽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었고 / 독자들이 그 글을 읽으며 그들의 뇌가 다시 추적 관찰되었다.

선티 이 부분은 volunteers, monitored 등의 단어를 통해, '실험했구나?'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 나는 얼른 (A)를 찾으러 가야 한다.

Scans showed that the **more challenging(B)** prose and poetry set off far **more** electrical activity in the brain **than** the more **pedestrian(A)** versions.

정밀 검사는 보여주었다 / 더 어려운 산문과 시가 뇌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전기적 활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 더 평범한 버전보다.

선티 이 문장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라는 걸 파악. 어떻게? 'Scans showed' 즉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more than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요하니까 명명어집중. 일반적인 (pedestrian) 텍스트보다 더 어려운 (challenging) 텍스트가 뇌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요약문 (A)에는 challenging과 동의어가 들어가는구나. 사실상 이 지문은 여기서 끝났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

선티 참고로, pedestrian을 '보행자'가 아닌 '평범한'으로 알고 있을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때, AB 대립성을 활용하는 거다. B가 challenging, 즉 '어려운' 텍스트이니, A에 해당하는 pedestrian은 '어렵지 않은' 정도의 뜻이겠구나-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Scientists were able to study the brain activity as it responded to each word and record how it lit up as the readers encountered unusual words, surprising phrases or difficult sentence structures. This lighting up lasts long enough to shift the brain into a higher gear, encouraging further reading.

과학자들은 뇌 활동을 연구할 수 있었다 / 뇌가 각 단어에 반응하면서 / 그리고 기록할 수 있었다 / 뇌가 어떻게 점화되었는지(활성화되는지를) / 독자들이 특이한 단어, 놀라운 구절, 혹은 어려운 문장 구조를 만났을 때에. / 이 점화는 뇌를 고단 기어로 전환할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 / 더 심화된 독서를 촉진하면서.

선티 이 부분은 '과학자들이 뇌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설명하는' 쓸데없는 부분이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 내용이 어려운데 이걸 막 세세히 읽고 있으면 안 된다.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reading the more **challenging(B)** version of poetry, in particular, increases activity in the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helping the readers to reflect on and reevaluate their own experiences(B) in light of what they have read. The **academics** said this meant the classics were **more useful than self-help books**.

연구는 또한 발견했다 / 더 어려운 버전의 시를 읽는 것이 특히 우뇌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 독자들이 자신이 읽은 것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도록 도와주면서. / 학계는 이것이 고전작품들이 자기계발서보다 더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선티 역시 말을 되게 '어렵게'하는데, 우리의 사고과정은, challenging을 발견한 후, 어려운 걸 읽는 게 '좋다는거구나' 마지막까지 반전은 없구나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다만, 선지에서 '어휘'로 한 번 더 변별을 하고 있다. 어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demanding'의 경우 '요구하는'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힘든, 고된'이라고 해야 함. 따라서 여기서선 challenging과 동의어. **답은 2번!**

(A)	(B)
① challenging distorts
② demanding activates
③ comprehensible increases(14%)
④ difficult hinders
⑤ accessible stimulates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요약문부터 'not A but B'를 대놓고 말해주는, 수능영어는 not A but B임을 외치는 문제이다. 이미 요약문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필자의 A, B 관점을 잡으시고, 빈칸 (A)와 (B)를 어느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지문에서 '동어' 확인만 해주는 것. 다 박세게 읽으면 바보다!

A: 예술 작품은 단순한 복제품, 유한성 < B: 예술 작품은 고유한 창작물, 무한성

Vocabulary

1. regardless of	9. go to one's reward	1. ~에 상관없이	9. 죽다(die)
2. approximate	10.	2. 가깝다, ~와 비슷하다	10.
3. rigorous	11.	3. 정성을 다하는	11.
4. ultimately	12.	4. 궁극적으로, 결국	12.
5. subject	13.	5. 대상, 피실험자	13.
6. aspect	14.	6. 모습, 측면	14.
7. put together	15.	7. 모으다, 만들어내다	15.
8. precisely	16.	8. 정확하게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6.45(72%)]

Every work of art, **no matter how** precisely it (A) the original, is **not a mere reproduction(A), but a unique creation(B)** that exists on its own and **never** (B) (A).

모든 미술 작품은, 아무리 정확하게 원본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결코 죽지 않는 독특한 창조물이다.

선티 요약문 자체에 not A but B 표현이 있다. (A)는 'no matter how'라는 A 시그널에 들어 있으므로, '단순한 복제(a mere reproduction)'라는 A 로직과 궤를 같이 하겠다. '원본을 (A) 하는 것이' '단순한 복제'가 돼야 하므로, (A)는 '드러내다(reveal), 모방하다(imitate), 떠올리다(recall)'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3번은 예증하다, 5번은 검증하다인데, 복제품이 원본을 예증, 검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B)를 찾는 것. 원본을 모방한 미술작품이 단순한 재생산이 아니라, 절대 (B)하지 않는 특성이 있구나. 이 부분을 얼른 찾아야지, 라는 목적 의식을 확실히 한다.

All art is creation(B), **regardless of** how closely the imitation **approximates** the original. Even the most **rigorous** attempt to create an absolute likeness is **ultimately** selective(B).

모든 미술은 창조이다 / 모방이 원본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았는지에 상관없이. / 완전히 똑같은 것을 창조해내려는 가장 정성을 들인 시도조차도 / 궁극적으로 선택적이다.

선티 요약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원본 따라하려 해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선택적(selective)이라는 표현으로 어렵게 얘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imitation'이라는 표현을 보고 요약문(A)는 이와 동의어임을 확증. (A)가 2번이니, (B)가 '소멸하다(perish)'인지 뒤에서 '확인'만 한다. 효율적으로!

Doing a portrait, **for example**, the artist may ask the **subject** to look serious, not smile — selecting a certain **aspect** of the person. We know Mona Lisa Giaconda, the subject of the most famous portrait in the world, through her mysterious smile; but we will never know what the entire person was like.

예를 들어, 초상화를 그리면서 화가는 대상에게 미소 짓지 말고 진지하게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 / — 그것은 그 사람의 특정한 한 면을 선택하는 것이다. / 우리는 Mona Lisa Giaconda를 안다,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의 대상인, / 그 신비한 미소 때문에 / 하지만 그 사람 전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선티 예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읽으면 바보다. 그냥 모나리자라는 단어를 보고, '아무리 실제 모나리자 인물을 따라하려 해도 그림은 그림일 뿐이라는 얘기군' 하고 넘어가야 한다.

The treasure of art, **however**, is that its reality lives forever(B). The final product is really an addition(B) to reality, **not** simply a way of totally reproducing it(A).

하지만 예술의 보배는, 그것의 실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 최종 작품은 실제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다 / 단지 실재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티 드디어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작품의 특징 B가 나왔다. However라는 표현을 통해 이 문장부터 B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집중해서 잡아낸다. 바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특징을 머릿속에 박고, 다음 문장도 not A but B 구조이므로 addition to reality도 B의 특징으로 가져간다.

The artist always contributes something new(B), something that **never was put together in precisely** that way before.

화가는 항상 새로운 것을 기여한다. / 즉 전에는 결코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는 어떤 것을.

선티 'new' 또한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의 특징, 즉 B라는 범주에 grouping.

Leonardo's Mona Lisa(B) is not Mona Lisa(A). The latter has long since **gone to her reward**; the former will **never die(A)**.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가 아니다. / 후자는 오래 전에 죽었지만 전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선티 마지막 문장에서 the latter(A), the former(B)하면서 한 번 더, 제발 틀리지 말라고, AB 강조. B의 특징은 네버다이(not A)! 결국 **die의 동의어로 perish(소멸하다)**를 아냐의 문제였다. 답은 2번!

- | | | |
|---|-------------|----------------|
| | (A) | (B) |
| ① | reveals | compromises |
| ② | imitates | perishes |
| ③ | illustrates | returns |
| ④ | recalls | stands alone |
| ⑤ | verifies | goes unnoticed |

KISS LOGIC Level 2 ■■

Part 1

Day 4

출처 2013.수능.23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say that we need to curb anger and 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eny our feelings.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enial and restraint. The latter constitutes a deliberate and voluntarily adopted discipline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doing so.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meone who suppresses emotions such as anger out of a feeling that they need to present a facade of self-control, or out of fear of what others may think. Such behaviour is like closing a wound which is still infected. We are not talking about rule-following. Where denial and suppression occur, there comes the danger that in doing so the individual _____ anger and resentment. The trouble here is that at some future point they may find they cannot contain these feelings any longer.

* facade: 표면, 겉

- ① fades out ② copes with ③ stores up
- ④ soothes ⑤ overestimates

NOTE

출처 2013.수능.24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ave you ever heard anyone say of a dog, “Well, he’s very successful and lives in a beautiful house, but he’s not very happy”? One reason most dogs are much happier than most people is that dogs aren’t affected by external circumstances the way we are. I notice that even when it’s pouring rain outside, my dogs, Blue and Celeste, are still excited to go for a walk. As soon as I open the front door to look outside, they’re beside me in a flash, standing expectantly, ready for an adventure. I usually wait for a break in the downpour, and then we all dash out together. The fact that the ground is wet and there are mud puddles dotting the landscape _____. While I’m carefully picking my way around the wet spots, the dogs are joyfully splashing right through them. They aren’t afraid to get their paws dirty.

- ① motivates us to take a shorter walk
- ② stirs great excitement in me
- ③ puts the dogs in trouble
- ④ means nothing to the dogs
- ⑤ makes me want to wander around

NOTE

출처 2013.수능.25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Belding’s ground squirrels, males leave home and females mature in their natal area. This male-biased dispersal creates an imbalance in the way males and females are related to those individuals around them — females find themselves surrounded by relatives, while males are generally in areas with complete strangers. This asymmetry translates into females who warn close kin by emitting alarm calls, while males generally do not emit calls since their dispersal from their natal areas means their blood kin typically do not benefit from such a warning. Further support for the kinship-based alarm-calling hypothesis includes Sherman’s finding that in the rare instances when females do move away from their natal groups and into groups with far fewer relatives, they _____.

- ① end up acquiring the alarm calls of the new group
- ② make constant attempts to bring their blood kin along
- ③ display a tendency to become more active and cooperative
- ④ emit alarm calls less frequently than do native females
- ⑤ adopt a more elaborate defense mechanism than alarm calls

NOTE

출처 2013.수능.26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of what perception entails.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do the eye and camera have anything in common. Both eye and camera have a lens that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and both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Both eye and camera have a light-sensitive layer onto which the image is cast (the retina and film, respectively). However, image formation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seeing. _____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which is that the camera merely records an image, whereas the visual system interprets it. [3점]

- ① Apparent differences in the focusing power of a lens
- ② Superficial analogies between the eye and a camera
- ③ Contrasts in light adaptation between the retina and film
- ④ Misunderstandings of image formation in the eye and a camera
- ⑤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NOT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③번.

처음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하나도 버릴 문장이 없이 정말 AB가 잘 '짜여져' 있는 지문. 연습하기 아주 좋은 표본같은 지문이다. 역시 수능! 첫 문장부터 'not'과 'distinction'을 통해 분노 대처 방식에 대한 AB를 정확하게 잡고, 이해하고, 이를 grouping하며 내려가, 빈칸 문장을 A로 정의하며 답을 내야 한다.

A: 분노를 부인, 억압 < B: 분노를 억제, 자제

1. curb	9. suppress	1. 억제하다	9. 억압하다
2. distinction	10. out of fear of	2. 구분	10. ~을 두려워해서
3. denial	11. close a wound	3. 부정	11. 상처를 봉합하다
4. restraint	12. rule-following	4. 자제	12. 규칙 준수
5. constitute	13. resentment	5. 구성하다	13. 분개
6. deliberate	14. fade out	6. 의도적인	14. 희미해지다
7. discipline	15. overestimate	7. 학문 분야, 규율	15. 과대평가하다
8. appreciation	16.	8. 이해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수능.23(64%)

To say that we need to **curb** anger and our negative thoughts(B) and emotion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deny** our feelings(A). There i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enial(A)** and **restraint(B)**.

분노, 부정적 생각,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부정과 자제 사이에는 중요한 구분이 지어진다.

선택 첫 문장부터 반응해야 한다. 왜? not 때문에. '부정적 감정들을 억제하는 것은 ~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부분이 not A라는 느낌이 오셔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높은 확률로? B진술이 와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니 AB임을 알 수 있는 감사한 단어가 있다. 'distinction(구분)'. AB를 구분하겠다는 얘기다. denial과 restraint가 나오는데 첫 문장에서 deny가 아니라 했으므로 denial은 A로 잡고 restraint는 B로 잡는다. 자, 여기서 이 지문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뒤에 급 역점이 없는 한, 필자는 부정적 감정 억제란 부인(A)이 아니라 자제(B)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부터 AB가 나오면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The latter(B) **constitutes** a **deliberate** and voluntarily adopted **discipline(B)**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of doing so.

후자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택한 규율로 구성된다 /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 후자니까 B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집중해서 B의 특징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아, 자제라는 것은 신중하고 자발적인, 이익이 되는 행위구나.

This(B) is ver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meone who **suppresses** emotions(A) such as anger out of a feeling that they need to present a façade of self-control, or **out of fear** of what others may think. **Such behavior(A)** is like **closing a wound** which is still infected. We are **not** talking about **rule-following(A)**.

이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누군가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 자기 통제 측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감정에서 나오는, / 혹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해서 나오는. / 그러한 행동은 아직 감염되어 있는 상처를 바늘로 꿰매는 것과 같다. / 우리는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선택 different라는 표현을 통해 B에서 A로 전환하고 A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뭔가 '안 좋은 것'이라는 느낌을 좀 깔고 가셔야 더 잘 이해가 된다. 아 A하는 건 상처 감염됐는데 봉합하는.. 안 좋은 것, P 느낌이구나. rule-following도 not에 걸리므로 A로 grouping 할 수 있겠다.

Where denial and suppression(A) occur, there comes the danger(P) that in doing so the individual _____ anger and **resentment**.

부정과 억압이 발생하는 곳에서, 위험이 나온다 / 그렇게 하는 데서 해당 개인은 화, 분노를 가중시킨다.

선택 빈칸으로 오니,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A를 하면 개인에게 어떤 위험(danger=P)이 있는지를 넣는 것. 제발. A는 필자가 까는 것이니, **기본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것=P'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있어도, 화를 '돋우는'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생각만 하고 봐도 답은 3번임을 알 수 있다. 1,2,4번은 모두 이 분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니 '반대' 선지이다.

The trouble(P) here is that at some future point they may find they cannot contain these feelings any longer.

문제는 바로 미래 언젠가 이러한 감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 이렇게 지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으면, 사실상 빈칸의 앞부분에서 지문의 핵심(답)을 끌어내는 것은 끝났어야 한다(물론 가끔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도 그 다음 문장이 큰 힌트가 되기도 하지. 항상 확률적인 것). 역시나 이 문장도, A를 하면 문제(trouble)가 된다는 것으로, 부연 정도로 볼 수 있다.

- ① fades out(반, 희미해지다) (16%)
- ② copes with(반, 대처하다)
- ③ stores up(O, 축적되다)
- ④ soothes(반, 달래다)
- ⑤ overestimates(off, 과대평가하다)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아~~주 무난한 AB이니 아직 AB가 익숙하지 않다면 이 지문으로 잘 느껴보도록 하자. 지문의 1/3 지점 비교급과 not의 시그널을 통해 바로 AB를 잡아주시고, 예시를 빠르게 넘어간 후 빈칸 답과 연결하는 속도 그리고 정확도가 필요하다.

A: 사람, 외부 환경 신경 씬 < B: 개, 외부 환경 신경 안 씬

Vocabulary

1. external	9.	1. 외부의	9.
2. circumstance	10.	2. 상황	10.
3. in a flash	11.	3. 순식간에	11.
4. expectantly	12.	4. 기대하면서	12.
5. dash out	13.	5. 달려나가다	13.
6. mud puddle	14.	6. 진흙 웅덩이	14.
7. stir excitement	15.	7. 신나게 하다	15.
8. wander around	16.	8. 돌아다니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수능.24(67%)

Have you ever heard anyone say of a dog, “Well, he’s very successful and lives in a beautiful house, but he’s not very happy”?

누군가 개 한 마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 “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네?”

선택지 정말 뭘 ‘개’소리지? 하고 넘어가면 된다 ㅋㅋㅋ.

One reason most dogs(B) are much happier than most people(A) is that dogs aren’t affected by external circumstances(A) the way we are.

대부분의 개들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이유는 / 개들은 우리가 영향 받는 것처럼 외부 환경에 영향 받지 않아서이다.

선택지 자, 첫 문장은 개소리였지만, 이 문장에서는 필자의 핵심이 나왔다. happier than이라는 표현을 보고 환장하며 집중하고, 필자는 개와 사람을 비교하여 개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be동사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개들은 외부 상황에 영향 받지 않아서라고 한다. 여집합. 그럼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네. 외부 상황은 A.

I notice that even when it’s pouring rain outside, my dogs, Blue and Celeste, are still excited to go for a walk. As soon as I open the front door to look outside, they’re beside me in a flash, standing expectantly, ready for an adventure. I usually wait for a break in the downpour, and then we all dash out together.

내가 알아챈 것은 심지어 밖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 내 개들은 여전히 신나게 산책 가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 대문을 열고 밖을 보자마자, / 개들은 순식간에 내 옆에 와서, / 모험 준비가 된 채 기대하며 서있었다. / 나는 보통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가 잠깐 멈추는 때를 기다린다, / 그리고 우리는 함께 튀어나간다.

선택지 Blue랑 Celeste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예시라는 것 확인, 그럼 이 부분을 읽으면 바보다. 왜? ‘개들은 외부상황에 영향 안 받아서 행복하다’라는 예시였지 왜 이걸 읽고 앉았어..!

The fact that the ground is wet and there are mud puddles dotting the landscape(A) _____.

땅이 젖어있고 풍경이 진흙 웅덩이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은 / 개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선택지 빈칸으로 와서 주어를 보니, 진흙으로 묘사한 외부상황이다. 이런 외부 상황은 ‘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빈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대로 답은 4번!

While I’m carefully picking my way around the wet spots, the dogs are joyfully splashing right through them. They aren’t afraid to get their paws dirty.

내가 젖은 부분 주위에서 조심히 걷고 있는데, / 개들은 즐겁게 젖은 부분을 튀기며 논다. / 개들은 발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택지 속 읽으나 빈칸에 별 도움은 되지 않는 부연설명. 나는 이미 필자의 핵심 메시지를 알거든.

① motivates us to take a shorter walk(A. 세부)(10%)

우리가 짧은 산책을 할 동기를 준다

매력 오답: 1번도 A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지문의 핵심은 B(개)에 대한 것이라 걸 명심하고, ‘산책’은 너무 세부적이다. 세부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② stirs great excitement in me(반)

내 안에 큰 즐거움을 섞어준다

③ puts the dogs in trouble(반)

개들을 문제 상황에 둔다

④ means nothing to the dogs(not B)

개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⑤ makes me want to wander around(반)

내가 떠돌아다니고 싶게 만든다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④번.

처음부터 AB를 전개하다가, 빈칸 전에 A와 B를 뒤집는, 2020년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도 많이 보이는 아주 좋은 지문이고 문제이다. 당근이지 수능인걸. 연습하고 느끼자. 수컷과 암컷을 AB하면서 내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결국 'in the rare instances'에서 이게 사실상 '뒤집히는' 부분이구나, 캐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

A: 수컷, 고향을 떠남, 알람 X vs. B: 암컷, 고향에 있음, 알람 O

1. mature(v)	9. emit alarm call	1. 성숙하다	9. 경고음을 울리다
2. natal area	10. kinship-based	2. 태어난 지역	10. 친족 기반의
3. dispersal	11. hypothesis	3. 분산	11. 가설
4. imbalance	12. move away from	4. 불균형	12. ~로부터 멀리 이동하다
5. complete stranger	13. end up Ving	5. 완전한 이방인	13. 결국 ~하게 되다
6. asymmetry	14. constant	6. 비대칭	14. 지속적인
7. translate into	15. elaborate(a)	7. 해석된다, 의미한다	15. 정교한
8. close kin	16. defense mechanism	8. 가까운 친족	16. 방어 기제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수능.25(48%)

In Belding's ground squirrels, males leave home(A) and females mature in their natal area(B).

벨딩의 얼룩 다람쥐에서, / 수컷은 집을 떠나고 암컷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한다.

선티 자, 첫 문장에 AB를 알려주는 signal은 없으나, 단어 자체의 대립성이 느껴진다. 수컷 vs. 암컷. 따라서 이 지문은 이 둘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기에 AB를 잡고 가자. 필자가 굳이 두 성별 중 어느 성별을 강조하려는 뉘앙스는 없으므로, 나온 순서대로 수컷에 A, 암컷에 B를 하자. 둘의 차이는, 수컷은 집을 떠나지만 암컷은 태어난 곳에 남아있다는 것. 참고로 이 내용은 2020학년도 수능 순서 문제 '철새 vs. 텃새' 지문과도 흡사하다. 기출의 중요성. Anyway, 나는 이제 뒤를 읽으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집중해서 잡아내야 한다.

This male-biased **dispersal** creates an **imbalance** in the way males and females are related to those individuals around them — females(B) find themselves surrounded by relatives(B), while males(A) are generally in areas with complete strangers(A).

이러한 수컷편향분산은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 수컷과 암컷이 주위 개체와 관련되는 방식에 있어서 / - 암컷은 주위가 동족으로 둘러싸이게 되지만, / 수컷은 보통 완전 모르는 개체의 지역에 있다.

선티 imbalance라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AB 지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 이쁜 뒤가 중요한가? 하고 봤더니 while이 보이므로 바로 반응하고 AB의 차이를 잡아준다. B는 친족들이 주위에 있지만, A는 모르는 개체들이 주위에 있다는 차이 확인, 각인.

This **asymmetry translates into** females(B) who warn close kin by emitting alarm calls(B), while males(A) generally do not emit calls(B) since their dispersal from their natal areas means their blood kin typically do not benefit from such a warning.

이러한 비대칭은 의미한다 / 경고음을 울려 가까운 동족에게 경고하는 암컷을, / 반면 수컷은 보통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다 / 태어난 곳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 혈족은 보통 그러한 경고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선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차이. while 앞뒤로 잡아준다. B는 위협에 처했을 때 경고음을 울리나, A는 울리지 않는다. 주변이 친족이 아니기에, 쓸모가 없으니까. '경고음 유무'의 차이도 머릿속에 각인.

Further support for the **kinship-based alarm-calling hypothesis** includes Sherman's finding that in the rare instances when females(B) do move away from their natal groups and into groups with far fewer relatives(B→A) they _____ (A).

이 친족 기반 경고음 가설을 더 뒷받침하는 것은 / Sherman의 발견을 포함한다 / 드문 경우에 암컷이 태어난 집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 동족이 훨씬 적은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 도착 암컷보다 경고음 울림 빈도수가 더 적다는 것을.

선티 여기가 아주 킬링포인트. 'rare instance'에 주목해야 한다. 드문 경우에, 암컷이 태어난 지역을 떠나 친족이 없는 곳에 가게 된다. 이 경우는, 암컷이 사실상 수컷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A'의 특성을 빈칸에 넣어야 한다. 이 느낌의 AB 반전은 최근 수능에서도 몇 번 쓰였으니 꼭꼭 가져가도록 하자. **A의 특징은,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 쓸모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답은, 경고음을 '덜' 울리게 된다는, 4번!**

- ① **end up acquiring the alarm calls(B)** of the new group(off)
새로운 집단의 경고음을 결과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 ② **make constant attempts to bring their blood kin along(off)**(17%)
혈족을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다
- ③ **display a tendency to become more active and cooperative(off)**
더 활동적이고 더 협동적이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 ④ **emit alarm calls less(B→A) frequently than do native females(B)**
고향의 암컷들보다 경고음을 덜 자주 울린다
→ '정답' 선지에 굳이 than이 있어 AB의 대립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정답 선지라는 것 주목! 평가원은 AB가 다 들어있는 정답 선지를 대의파악과 빈칸에서 참 좋아한다.
- ⑤ **adopt a more elaborate defense mechanism than alarm calls (off)**
경고음보다 더 정교한 방어 기제를 채택한다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대상의 AB, 진술의 AB 둘 다 볼 수 있고 매력적인 오답도 있는, 짝지만 얻을 게 많은 지문이다. 눈과 카메라라는 두 개의 대상도 대립성이 있고,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관점에서 대립성이 있다. 이 경우, 좀 더 큰 범주를 AB로 잡아주는 게 좋다. 즉 이 경우 눈, 카메라의 공통점 A, 차이점 B. 이거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

A: 눈과 카메라의 공통점(이미지 형성) < B: 눈과 카메라의 차이점

Vocabulary

1. liken A to B	9. cast(v)	1. A를 B에 비유하다	9. 던지다, 발하다
2. misleading	10. retina	2. 잘못된	10. 망막
3. perception	11. obscure(v)	3. 인식	11. 흐릿하게 하다
4. entail	12. fundamental	4. 수반하다	12. 근본적인
5. formation	13. merely	5. 형성	13. only
6. in common	14. apparent	6. 공통적인	14. 명백한
7. means(n)	15. superficial	7. 수단	15. 피상적인
8. light-sensitive	16. analogy	8. 빛에 민감한	16. 비유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수능.26(33%)

By **likening the eye(A) to a camera(B)**,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P, A)** of what **perception entails**.

눈을 카메라에 비유함으로써, / 초등학교 생물학 책은 인식이 일으키는 잘못된 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선티 처음부터 눈과 카메라라는 두 대상이 나오므로, AB 지문이구나 파악한다. 현대 이 둘을 비유(공통점이죠)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니, '통념'인 것이고, 이 통념을 A로 잡는 게 좀 더 큰 범주를 잡는 것이라 더 좋다.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A) do the eye and camera have anything in common.

이미지 형성의 물리학 관점에서만 / 눈과 카메라가 공통점이 있다.

선티 통념, 즉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A 관점이다.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Both eye and camera have a lens that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and both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Both** eye and camera have a **light-sensitive** layer onto which the image is **cast** (the **retina** and film, respectively).

눈과 카메라 둘 다 렌즈를 가지고 있다 / 외부 세계의 광선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 그리고 둘 다 이미지의 초점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 눈과 카메라 둘 다 감광층이 있다 / 그 위로 이미지가 맺히는 (각각 망막과 필름이다).

선티 자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눈과 카메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너는 바보. 왜? 이 부분은 앞 문장, 즉 A 관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Both'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둘 다'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공통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 중요한 건 차이점이지. 그러니 이 부분을 '아 공통점 얘기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However, **image formation(A)**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seeing. _____ **obscure(P)**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B) between the **two**, which is that the camera **merely** records an image, **whereas** the visual system interprets it.

하지만, 이미지 형성은 보는 것의 첫번째 단계일 뿐이다. / 눈과 카메라 사이의 피상적인 비유가 / 이 둘 사이의 더 근본적인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 바로 카메라라는 이미지를 단지 기록할 뿐이지만, / 시각 체계는 이를 해석한다는.

선티 빈칸 문장이 however로 시작하니 집중할 준비를 한다. A에서 반전이 있을 거니까. B가 나오거나 A를 깔 것이다. only에 주목한다. 'A'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공통점은 A일 뿐이란 거다. 그리고 빈칸을 보니 빈칸이 주어이고 이게 차이(공통점이 A이므로 차이점이 B)를 막는다(P). 즉 빈칸에는 A가 들어가면 된다. A는 뭐였죠? '눈과 카메라를 공통점으로 비교하는 것.' **둘 사이에 겹으로 보이는 공통점만 본다는 것에 가장 가까운 선지는 2번! 여전히 여기서도, analogy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 결국은, 단어.**

- ① **Apparent** differences(B) in the focusing power of a lens
렌즈의 초점력에 있어 드러난 차이
 - ② **Superficial** analogies(A) between the eye and a camera(O)
눈과 카메라 사이의 피상적 비유
 - ③ **Contrasts**(B) in light adaptation between the retina and film
망막과 필름 사이의 명순응 대조점
 - ④ Misunderstandings of image formation in the eye and a camera(마)
눈과 카메라의 이미지 형성에 대한 오해
- 매력 오답:** 4번(24%)이 A 느낌도 나고 눈과 카메라가 있어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잘 생각해야 한다. Image formation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눈과 카메라가 image formation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 둘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글. image formation만 똑같이 근본 원리는 다 다르다는 글.
- ⑤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off)
이미지 형성과 해석 사이의 긴밀한 관계 (21%)

KISS LOGIC Level 2 ■■

Part 3 Day 15

출처 2013.6.43

1.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is that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resembles not the relationships among billiard balls, but rather among bacteria.

- (A) Similarly, human societies in contact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 World historians, recognizing this, seek to understand human history through studying both developments within societies and the way in which societies relate to each other.
- (B) Bacteria, however, fundamentally shape each other as they interact. 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 are full of pores, bacteria can exchange genetic information and can even fundamentally alter each other's basic make-up when they touch.
- (C) Billiard balls rolling around the table may collide and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but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 The eight ball is an eight ball even after it is struck by the cue ball.

* membrane: 얇은 막 ** trajectory: 궤도

- | | |
|-------------------|-------------------|
| ① (A) - (C) - (B) | ② (B) - (A) - (C) |
| ③ (B) - (C) - (A) | ④ (C) - (A) - (B) |
| ⑤ (C) - (B) - (A) | |

NOTE

출처 2013.9.42

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ormer resident of Canton, Ohio, was trying to describe her image of the city to her classmates. She found they had no image of this mid-sized city. She described Canton as a city with major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a 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

- (A) That fact suddenly crystallized the concept of Canton. If Canton is destroyed, the nation might fall. That's an image that gave meaning and fullness to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
- (B) Her explanation moved the city from the position of no image to that of a negative image. The class concluded that Canton is a typical, boring, industrialized city.
- (C) Then she suddenly recalled an experience: "I remember hearing from a teacher that during World War II Canton was a major U.S. target of the Germans." Imagine, right after the cities of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appears the name of Canton.

- | | |
|-------------------|-------------------|
| ① (A) - (C) - (B) | ② (B) - (A) - (C) |
| ③ (B) - (C) - (A) | ④ (C) - (A) - (B) |
| ⑤ (C) - (B) - (A) | |

NOTE

출처 2014.6B.38

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rganic farmers grow crops that are no less plagued by pests than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 insects generally do not discriminate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as well as we do.

- (A) However, most organic farme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chemicals as necessary supplements to their operations. With pests often consuming up to 40 percent of the crops grown in the United States, they do so as a matter of course.
- (B) They might refer to these substances as “botanical extracts.” But according to Ned Groth, a senior scientist at Consumers Union, these toxins “are not necessarily less worrisome because they are natural.”
- (C) It is true that they are far more likely than conventional farmers to practice environmentally beneficial forms of biological control, and that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sensibly diversify their crops to reduce infestation.

* infestation: 횡행, 만연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NOTE

출처 2014.9B.38

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of the words we use and the meanings we think about are a combination of simpler ideas.

- (A) Some of them are specialized for sitting at certain high places, like bar stools. If you learned about a culture in which a certain type of chair was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sitting while waiting for a bus, you might think this is odd but would have no difficulty understanding it.
- (B) Consider a chair. Before you can have an idea of a chair, you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exist in the world certain functional objects. Some of these objects support human activity, in this case, sitting.
- (C)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s chair and waiting *for bus* allows you to create the new complex concept *chair used while waiting for bus*. But the basic concept of chair is built out of the simpler ideas that we take for granted: object, furniture, sitting. [3점]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NOT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⑤번.

지시어보다는 AB 논리의 아름다움으로 단락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단락의 첫 문장이 A문장인지 B문장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 어렵지 않으나 정말 평가원스러움이 느껴지는 AB와 순서의 결합이니, 잘 언어가도록 하자.

A: 당구공 관계, 서로의 성질을 바꾸지 않음 < **B:** 박테리아 및 인간 관계, 서로의 성질을 바꿈

1. underlying	9. make-up	1. 근원적인	9. 구성
2. interaction	10. relate to N	2. 상호작용	10. ~와 관련이 있다
3. billiard ball	11.	3. 당구공	11.
4. collide	12.	4. 충돌하다	12.
5. fundamentally	13.	5. 근본적으로	13.
6. pore	14.	6. 구멍	14.
7. genetic	15.	7. 유전적인	15.
8. alter	16.	8. 변화시키다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3.6.43(76%)

The **underlying** idea of world history is that the **interaction** among human societies resembles **not the relationships among billiard balls(A), but rather among bacteria(B).**

세계사의 기본 개념은 / 인간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당구공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박테리아 사이의 관계와 닮았다는 것이다.

선택 주어진 글부터 not A but B를 하니 참으로 좋은 글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가볍게 당구공을 A, 박테리아를 B로 잡도록 하자. A에서 B로의 변화가 순서 단락의 변화에 활용되지 않을까 한다.

(C) **Billiard balls(A)** rolling around the table may **collide** and affect each other's trajectories, but they do **not actually change each other(B):** The eight ball is an eight ball even after it is struck by the cue ball.

당구대를 돌아다니는 당구공은 충돌해서 서로의 궤도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 실제로 서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 8번 공은 심지어 큐볼에 맞은 다음에도 8번 공이다.

선택 (B) or (C): (C)는 당구공 얘기이고, (B)는 박테리아 얘긴데 however를 하고 나오니, 당연히 (C)부터 나와야겠다. 당구공의 특징을 얘기하고, however를 한 뒤 박테리아의 특징이 나와야 한다. (C)에서 'not'을 통해 당구공의 특성 파악. 당구공은 서로를 바꾸지 않는다. AB 대립의 원리로 박테리아의 특성도 이미 나온다. 서로를 바꾸겠지.

(B) **Bacteria(B), however, fundamentally** shape each other as they **interact(B).** Because the membranes covering bacteria are full of **pores**, bacteria can exchange **genetic** information and can even fundamentally **alter(B)** each other's basic **make-up** when they touch.

하지만 박테리아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서로의 모양을 형성해 간다. / 박테리아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서, / 박테리아는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서로 접촉할 때 심지어 서로의 기본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선택 (A) or (B): 핵심은 각각의 연결사가 되겠다. (A)의 경우 similarly이므로, 앞 문장과 's'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C)단락은 당구공 얘기고 (A)단락은 인간 얘기이므로 (A)가 먼저 나올 경우 A(당구공)=B(인간)이라는 얘기이므로 말이 안 된다. 반면 (B) 단락은, (C)단락에서 A(당구공)이 나오고 however로 뒤집어 준 후 B(박테리아)가 나오므로 논리가 완벽하게 연결된다. (B)!

(A) **Similarly,** human societies in contact **affect each other's development(B).** World historians, recognizing this, seek to understand human history through studying both developments within societies and the way in which societies **relate to** each other.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접촉하고 있는 인간 사회도 서로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 / 세계의 역사학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사회 내부에서의 발전과 사회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둘 다 연구함으로써.

선택 답은 이미 나왔지만, 논리의 연결성을 확인해보자. (B)단락이 B, 즉 박테리아 얘기를 했고, 같은 B그룹인 인간 사회 얘기를 (A)단락에서 similarly로 연결을 해주니, B논리가 완벽하게 연결된다. **(C) - (B) - (A) 답은 5번!**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 ④ (C) - (A) - (B)
- ⑤ (C) - (B) - (A)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쉬운 이야기 형태이지만, 그 속에 PS를 통해 단락이 바뀔 수 있는, 참 평가원스러운 지문. 이렇게 '이야기'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내가 로직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P: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 → S: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

Vocabulary

1. resident	9.	1. 거주자	9.
2. mid-sized	10.	2. 중간 크기의	10.
3. facility	11.	3. 시설, 설비	11.
4. revitalization	12.	4. 재생, 활력	12.
5. industrialized	13.	5. 산업화된	13.
6. crystallize	14.	6. 구체화하다	14.
7. fullness	15.	7. 만족, 충만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3.9.42(62%)

A former **resident** of Canton, Ohio, was trying to describe her image of the city to her classmates. She found they had no image of this **mid-sized** city. She described Canton as a city with major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a downtown **revitalization** program.

Ohio주의 Canton시에서 전에 거주했던 학생이 / 자신의 학급 친구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 이 학생은 그들이 이 중간 크기 도시에 대한 아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학생은 Canton시를 주요 제조시설들과 도심지 재활성 프로그램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다.

선티 정말 가벼운 주어진 글. 도시를 묘사했구나 정도만 기억하자. 이렇게 주어진 글에 로직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뒤 ABC 단락들에서 민감해야 한다.

(B) **Her explanation** moved the city from the position of no image to that of a **negative image(P)**. The class concluded that Canton is a **typical, boring, industrialized city(P)**.

그녀의 설명은 그 도시를 아무런 이미지가 없던 위치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위치로 바꾸었다. / 그 학급은 Canton시를 전형적으로 지루한 산업화된 도시로 결론 내렸다.

선티 (B) or (C): 강력한 판단 기준은 'her explanation'이 되겠다. 그녀의 설명이 앞에 나왔어야지. 주어진 글의 described를 explanation과 연결하면 아름답게 (B)로 갈 수 있겠다. (B)에서 negative를 비롯한 중딩 단어들을 로직 P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단락에서 P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S가 나오는지 주목해야 한다.

(C) **Then** she suddenly recalled an experience(S): "I remember hearing from a teacher that during World War II Canton was a major U.S. target of the Germans." Imagine, right after the cities of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appears the name of Canton.

그 때 이 학생은 갑자기 경험 하나를 생각해냈다. / "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Canton시가 독일군의 주요 미국 표적이었다고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 Chicago, New York, 그리고 Los Angeles와 같은 도시들 바로 뒤에 Canton시의 이름이 나온다고 상상해보라.

선티 (A) or (C): 둘 다 각 단락을 두번째 문장까지는 읽고 판단을 해야 한다. 결국 강력한 힌트는 (A)의 'that fact'가 났는데, (A)는 읽어보니 'that fact(그 사실)'이 Canton을 '중요한 도시(파괴되면 나라가 망하니까)'로 나타내기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 즉 P였던 (B)단락이 that fact를 받을 수 없다. (C)의 경우 그녀가 Canton의 다른 이미지 도입, 즉 S를 도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이것이 (A)의 that fact로 이어짐을 알 수 있겠다. (C)부터 먼저 오자.

(A) **That fact(S)** suddenly **crystallized** the concept of Canton. If Canton is destroyed, the nation might fall. That's an image that gave meaning and fullness to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S). 그러한 사실은 갑자기 Canton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 만약 Canton시가 파괴된다면,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 그것은 이미지이다 / 이 이미지는 Canton시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지에 대한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한다.

선티 답은 이미 나왔지만, 평가원 문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확인하자. (C)단락에서 Canton의 이미지가 P가 된 것에 대한 S를 제시하고, 그 S가 that fact로 연결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며 마무리되고 있다. **(B) - (C) - (A) 답은 3번!**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15%)
- ⑤ (C) - (B) - (A)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지문 자체는 AB와 P의 결합으로 너무 좋은데, 문제 자체는 these substances라는 지시어로 쉽게 풀어야만 하는 친구. 평가원은 순/삽에서 로직과 지시어를 물어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만, 둘 중 지시어가 명확할 경우 지시어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

A: 전통 농부, 해충에 시달림(P) vs. **B:** 유기농 농부도 해충에 시달리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 물질(P)을 써야 함

Vocabulary

1. organic	9. extract	1. 유기농의	9. 추출(하다)
2. plague	10. worrisome	2. 괴롭히다	10. 걱정스러운
3. pest	11.	3. 해충	11.
4. conventional	12.	4. 재래식의, 전통적인	12.
5. discriminate	13.	5. 구별하다, 식별하다	13.
6. diversify	14.	6. 다양화하다	14.
7. supplement	15.	7. 보충물	15.
8. botanical	16.	8. 식물의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4.6B.38(64%)

Organic farmers(B) grow crops that are no less **plagued** by **pests(P)** than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A)**; insects generally do not **discriminate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as well as we do.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전통적 재래 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의 작물들만큼이나 해충에 시달리는 작물들을 재배한다; / 벌레들은 대개 유기농과 재래 농법을 우리만큼 잘 구별하지 않는다.

선택지 중요한 문장이다. 뭘 보고? THAN. 유기농 농부들과 전통농부들을 비교하고 있다. 필자는 전통농부와 비교한 유기농 농부를 말하고 싶은 것일테니, 전자를 A 후자를 B로 잡자. 유기농 농부들도 전통농부만큼이나 해충 피해(P)가 있구나 잡고, 이 뒤에 둘의 차이를 통해 단락 구분을 어떻게 할지 집중해보도록 하자. (cf. no less than의 해석이 중요하겠다. ‘만큼이나’. no more than: ‘-에 불과하다’)

(C) It is true(인정) that **they(B)** are far more likely than **conventional farmers(A)** to practice environmentally beneficial forms of biological control, and that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sensibly **diversify** their crops to reduce infestation.

사실이다 / 그들이 재래 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보다 환경적으로 유익한 형태의 생물학적 방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은, / 그들이 또한 현명하게 자신들의 작물들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 (벌레들이) 만연한 것을 줄이기 위해.

선택지 (B) or (C): 각 단락 첫 문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강력한 판단 기준은 ‘these substances(이러한 물질들)’이 되겠다. ‘구체적인 지시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어가 명료하게 있을 경우, 로직보다 이 지시어를 판단 기준 우선순위로 둔다. 앞 단락에 이를 가리킬 ‘물질들’이 나와야 하는데, 주어진 글에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로 가면서, (C)의 강력한 대명사 힌트인 they가 주어진 글의 주어인 유기농 농부와 연결되는 걸 보면서 (C)로 확정하자!

(A) **However**, most **organic farmers(B)**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chemicals(P)** as necessary **supplements** to their operations. With pests often consuming up to 40 percent of the crops grown in the United States, they do so as a matter of course.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그들의 작업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보충물로서. / 흔히 해충들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40퍼센트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 그들은 으레 그렇게 한다.

선택지 (A) or (B): 여전히 (B)의 these substances가 강력한 판단 기준이다. 현대 (C)에서 아직도 이를 가리킬 수 있는 복수명사가 없다. 따라서 (A)가 먼저 오는 것이고, however를 통해 유기농 농부 B가 however 앞에서는 좋은 애기, however 뒤에서는 P라는 역접을 확인하면서 (A)로 확정한다.

(B) They might refer to **these substances** as “**botanical extracts.**” But according to Ned Groth, a senior scientist at Consumers Union, these toxins “are not necessarily less **worrisome** because they are natural.”

그들은 이러한 물질들을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 하지만 소비자 연맹의 수석 과학자인 Ned Groth에 따르면, / 이러한 독소들은 “그것들이 천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덜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다.”

선택지 답은 이미 확정됐지만, (B)의 these substances가 (A)의 chemicals와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며, **(C) - (A) - (B) 4번으로 답을 확정하자!**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10%) ④ (C) - (A) - (B)
- ⑤ (C) - (B) - (A)(10%)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두 AB의 개념, 지시어, 그리고 관사의 쓰임(앞에 나온 것을 가리킨다)을 통해 순서를 잡는 게 포인트. 무슨 막 '내용 연결로 어떻게 붙여야지..' 이런 거 아니다. 순서의 본질은 순서를 맞추는 것. 심플하고 효율적으로 가자.

A: 의자의 개념 vs. B: 버스를 기다리는 개념

Vocabulary

1. combination	9.	1. 조합	9.
2. functional	10.	2. 기능적인	10.
3. specialized	11.	3. 특화된	11.
4. stool	12.	4. 간이 의자	12.
5. odd	13.	5. 이상한, 홀수의	13.
6. complex(a)	14.	6. 복잡한	14.
7. take for granted	15.	7. 당연시 여기다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4.9B.38(73%)

Most of the words we use and the meanings we think about are a **combination** of simpler ideas.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의미는 / 더 단순한 생각들의 조합이다.

선티 무난한 주어진 문장인데, 나한테 AB적으로 반응이 오는 부분이 하나 있다. 'combination.' 수능영어에서의 combination은 보통 두 개의 조합이라 해도 무방하기에, AB의 조합인가?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어도 괜찮다.

(B) **Consider** a chair(A). Before you can have an idea of a chair, you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exist in the world certain **functional** objects. Some of **these objects**(A) support human activity, in this case, sitting.

의자를 생각해보자. / 의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전에, /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세상에는 특정한 기능을 하는 물체가 있다는 것을. / 이러한 물체들의 몇몇은 인간의 활동을 뒷받침 한다 / 이 경우에는, 앉기이다.

선티 (B) or (C): 두 단락의 차이가 'chair'라는 것은 바로 보일 것이다. (B)의 경우 'a chair'로 chair를 처음 등장시키고 있고, (C)의 경우 'the concept chair(그 의자라는 개념)'으로 이미 언급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waiting for bus'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아직 이 키워드 도입을 안했으므로 (B) 먼저 가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 순간 의자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각각 A,B로 잡을 수 있다. 왜? 의자 얘기 먼저 하고, 버스 얘기 하고, 그 다음 이 둘을 종합해줄테니까. 이 순간 각각 AB로 잡자.

(A) Some of **them**(A) are **specialized** for sitting at certain high places, like bar **stools**. If you learned about a culture in which a certain type of **chair**(A) was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sitting while **waiting for a bus**(B), you might think this is **odd** but would have no difficulty understanding it.

그것들 중 몇몇은 특정한 높은 장소에 앉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 바에 있는 높은 의자처럼. / 만약 여러분이 문화에 대해 배웠다면 / 이 문화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의자가 앉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 여러분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선티 (A) or (C): (C)부터 보도록 하자. (C)는 (B)(C)를 가르면서 한 번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the concept waiting for bus(그 버스를 기다린다는 개념)'도 (C) 앞에서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 (A)의 두번째 문장에서 waiting for a bus라는 개념이, 즉 B가 처음 언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A)의 them이 의자들이고, (B)의 마지막 these objects와 연결하면서 확실히 (A) 먼저! 문풀은 끝났다.

(C)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s chair(A) and waiting for bus(B)** allows you to create the new **complex** concept **chair used while waiting for bus**. But the basic concept of chair is built out of the simpler ideas that we **take for granted**: object, furniture, sitting.

의자와 버스를 기다리는 개념의 조합은 / 새로운 복잡한 개념을 만들게 해준다 /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용되는 의자라는. / 하지만 의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세워진다 /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 물체, 가구, 앉기라는.

선티 답은 이미 나왔지만, 'the concepts'가 앞서 언급한 두 개념(의자, 버스 기다리기)을 가리킨다는 걸 확인하면서, (B) - (A) - (C) 2번으로 확정하자!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17%) ④ (C) - (A) - (B)
- ⑤ (C) - (B) - (A)

KISS LOGIC Level 2 ■■

Part 3 Day 16

출처 2014.6B.39

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the ones in which he could get up and do things like industrial arts, drama, science projects, or P.E. were always his favorites.

Jason always seemed to have a tough time in classes, except in the ones where he could do something. In the classes in which the teachers just stood and talked, or told everyone to read, he seemed to get bored and restless. (①) He soon realized that he was not a slow or unmotivated learner; he was a kinesthetic learner. (②) Once he figured this out, he started to use this information to his advantage. (③) He would draw out what he learned from class on notes, posters, and doodles. (④) He would act out things and work with other students on projects using role play and drama. (⑤) This helped his learning come alive, and he was less bored. As a result, he not only enjoyed school more, but his grades also went up.

* kinesthetic: 운동 감각의

NOTE

출처 2011.수능.44

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recent success in the packaged-cookie market suggests that these may not be the only, or perhaps even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eat a cookie? Some reasons might be to satisfy your hunger,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or just to have something to chew on. (①) It appears that cookie-producing companies are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and, as a result, are delivering to the market products resulting from their awareness. (②) These relatively new product offerings are usually referred to as ‘soft’ or ‘chewy’ cookies,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more typical crunchy varieties. (③) Why all the fuss over their introduction? (④) Apparently much of their appeal has to do with childhood memories of sitting on the back steps devouring those melt-in-your-mouth cookies that were delivered by Mom straight from the oven, while they were still soft. (⑤) This emotional and sensory appeal of soft cookies is apparently at least as strong as are the physical cravings that the product satisfies.

NOTE

출처 2015.6.39

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no one, even your child, is exactly like you.

Parents often believe that they are providing help to their children when they constantly correct and criticize them, assuming that they will grow from these remarks. But ask yourself: Do you like being corrected? Do you grow when you are constantly criticized? (①) In truth, we tend to stay the same when we are criticized. (②) We want to defend what we have done, and our innate stubbornness refuses to permit us to accept the criticism we are receiving. (③) Behind virtually all criticism is the sentence “If only you were more like me, and living life as I see it, you would be a lot better off.” (④) Praise your children for attempting a task, even if it was unsuccessful, and for taking risks. (⑤)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your children know that you are with them in their efforts, rather than looking to criticize them.

NOTE

출처 2015.9.37

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But neither are aware of this fact when it comes to unmarked crosswalks.

Studies do show that motorists are more likely to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 than at unmarked crosswalks. But as some researchers found, that does not necessarily make things safer. (①) When they compared the way pedestrians crossed at both kinds of crosswalks on roads with considerable traffic volumes, they found that people at unmarked crosswalks tended to look both ways more often, waited more often for gaps in traffic, and crossed the road more quickly. (②) Researchers suspect that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are more aware that drivers should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 (③) Not knowing traffic safety laws, it turns out, is actually a good thing for pedestrians. (④) Because they do not know whether cars are supposed to stop, they act more cautiously. (⑤) Marked crosswalks, by contrast, may give pedestrians an unrealistic picture of their own safety. [3점]

NOTE

Shean.T's Comment **Vocabulary**

정답: ①번.

문삽도 답이 1번일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문제. 사실 실전에서 1번이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 이를 딱 찍고 뒤를 아예 안 읽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1번을 'AB 대립'으로 확인한 뒤, 2~5번을 빠르게 logic, 지시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A: 수동적인 수업은 싫어함 < B: 능동적인 수업을 좋아함

1. industrial art	9.	1. 기술 교과, 공예	9.
2. restless	10.	2. 가만히 못 있는	10.
3. draw out	11.	3. 자세히 설명하다	11.
4. doodle	12.	4. 낙서	12.
5. act out	13.	5. 실연하다, 연출하다	13.
6.	14.	6.	14.
7.	15.	7.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4.6B.39(73%)

But the ones(B) in which he could get up and do things like industrial arts, drama, science projects, or P.E. were always his favorites.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기술 교과, 연극, 과학 프로젝트, 체육 같은 수업은 / 그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선티 주어진 문장. 우선 But이 가장가장가장 중요한 힌트라는 것은 알지 않을까? 중요한 건, but 앞뒤가 대조될 거란 것이다. A vs. B 혹은 P vs. S로. 문장을 읽어보니 자신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과목은 좋아했다고 한다. AB 혼련이 되어 있고 눈치가 빠른 친구라면, but 앞에는 이와 '반대가 되는 과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이미 내가 '안 좋아하는 과목에서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뀌는 지점'이 답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

Jason always seemed to **have a tough time(P) in classes, except in the ones(B) where he could do something. In the classes(A) in which the teachers just stood and talked, or told everyone to read, he seemed to get bored and restless(P).**

Jason은 항상 수업 시간에 힘들었던 것처럼 보였다 / 그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 교사가 그저 서서 말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읽으라고 말하는 수업에서, / 그는 지루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선티 1번 앞에서 바로 AB가 잡힌다. 예상했듯, 기존의 지루한 수업(A)에는 Jason이 싫증이 났고,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업(B)에서는 팬찮았다.

(①) He soon realized that he was not a slow or unmotivated learner; he was a kinesthetic learner(B).

그는 곧 깨달았다 / 자기가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학습 동기가 없는 학습자가 아니라 / 운동감각적인 학습자였음을.

선티 여기가 사실 좀 어렵다. 어렵다기보다, 'gap'이 제대로 안 느껴진다. 1번에 주어진 문장이 안 들어가면 큰 문제, gap이 있는가?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하겠다. 분명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어떤 문장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삽 문제에서 정답 되는 부분이 꼭 '문제가 되는 gap'이 있어야만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이는 특히 '요즘' 평가원 문삽에 서 더 많이 보이는 추세다.

선티 주어진 문장이 But + B의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완벽한 판단 근거의 지시/논리가 있을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기억'하고 해당 지시/논리가 맞는 부분에 넣는 게 중요하다. 1번 선지의 경우, 이 앞에서 'A는 싫다(P)'라고 했으니, 이 뒤에 'But B는 좋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면 아름답게 논리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번 뒤에서 'not A but B'로 이를 '갈무리'해주면 완벽하겠다.

선티 하나 정답 1번을 이렇게 확신한다 해도, 이것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쉽지 않다(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겠지만). 뒤 선지들도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확인만 하자.

(②) Once he figured this out, he started to use this information to his advantage.

일단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때, 그는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장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티 this를 확인한다. 2번 앞 문장은 B를 깨달았다는 문장이고, 2번 뒤 문장은 이것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문제 없이 잘 이어진다.

(③) He would draw out what he learned from class on notes, posters, and doodles(B). (④) He would act out things and work with other students on projects using role play and drama(B).

그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쪽지, 포스터, 그리고 낙서로 자세히 설명하곤 했다. / 그는 배운 것들을 실연으로 옮겼고, / 역할극이나 연극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곤 했다.

선티 이 두 문장은 이렇다 할 지시어, 대명사 없이 B의 부연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⑤) This(B) helped his learning come alive, and he was less bored. As a result, he not only enjoyed school more, but his grades also went up.

이것은 그의 학습이 활기 있도록 도와주었고, / 그는 덜 지루해졌다. / 그 결과, 그는 학교생활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올라갔다.

선티 5번 뒤에 this라는 중요한 대명사가 있으니 확인. 동사를 보니 help, 즉 도와줬다는 것이니, B 얘기가 맞다. 다 읽고 있으면 바보다.

5번 선지까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선지가 1도 없다. 따라서 아까 세모 친 1번을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답은 1번!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안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무려 수능에서 문샷 정답을 1번으로 배치해 참 악랄한 시험임을 확인 사살한 부분. 정답 번호 위치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만큼, 지문의 내용이나 난이도 자체는 쉽다. 올해 수능에도 문샷 답은 1번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A: 포장쿠키의 여러 성공 요인 < B: 포장쿠키의 더 중요한 성공 요인 - 부드러운 식감

Vocabulary

1. awareness	9. apparently	1. 인식, 깨달음	9. 겉보기에, 명백히
2. relatively	10. have to do with	2. 상대적으로	10. ~와 관련이 있다
3. be referred to as	11. devour	3. ~로 불리다	11. 게걸스럽게 먹다
4. distinguish A from B	12. sensory	4. A와 B를 구분하다	12. 감각의
5. crunchy	13. craving	5. 바삭한	13. 갈망, 열망
6. varieties	14.	6. 종류(보통 복수형)	14.
7. all the fuss	15.	7. 야단법석	15.
8. introduction	16.	8. 소개, 도입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1.수능.44(33%)

However, recent success in the packaged-cookie market suggests that these(A) may not be the only, or perhaps even the most important, reasons.

하지만 최근의 포장쿠키 시장에서의 성공은 보여준다 / 이것들이 유일한, 혹은 아마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택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으므로 감사하다. 이 문장 앞뒤로 대립성이 느껴질 것이니. 문장을 읽어보니 not A의 논리가 보인다. 아, 포장쿠키 시장의 성공에 있어 이것이 유일한 성공 요인이 아니라고 하니, 이 다음에는 '다른' 성공 요인이 나오겠군 :) 또한 이 앞 문장에는 포장쿠키가 성공한 어떤 요인이 제시되었겠군! 이 문장의 논리는 'However, not only A'라는 점을 기억하고 알맞은 곳에 넣으려 하셔야 한다. 또한 'these'이니, 두 개 이상의 어떤 이유들이 앞에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

Why eat a cookie? Some reasons(A) might be to satisfy your hunger,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or just to have something to chew on.

왜 쿠키를 먹을까? / 몇 가지 이유로는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혈당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혹은 단지 씹어 먹을거리로서 일지 모른다.

선택 'some reasons'가 눈에 확 들어와야 한다. 왜? 앞서 내가 잡은 AB가 쿠키가 성공했던 '이유'에 대한 것이니까. 'some reasons'가 먼저 나왔으니 이 이유들이 A 이유들이고, 나의 목적은 언제 'other reasons'로 역접을 통해 바뀌느냐, 찾는 것이 되겠다. 만약 이 뒤에 바로 B 이유들이 나온다면,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것.

(①) It appears that cookie-producing companies are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and, as a result, are delivering to the market products resulting from their awareness.

쿠키 제조 회사들은 어떤 다른 영향들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 결과, 그 깨달음에서 기인한 시장 상품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

선택 엇, 1번 뒤부터 바로 'other influences(reasons)'가 나왔다. 이걸 깨닫고 다른 이유들로 만든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 역접이 없이 A이유에서 B이유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1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서 역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수능이라 1번에 바로 이렇게 넣고 넘어가기가 솔직히 좀 쪼랄 것이다. 따라서 1번에 세모를 치고, 2-5번이 문제가 없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자.

(②(17%)) These relatively new product offerings are usually referred to as 'soft' or 'chewy' cookies(B),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more typical crunchy varieties(A).

이러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상품 제공은 대개 '부드러운' 또는 '씹는 맛이 있는' 쿠키로 불린다, / 이는 더욱 전형적인 바삭한 종류와 그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These-offerings' 집중. '이러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가리키는 게 앞 문장에 있나? 있다. 'market products.' 문제가 없음을 인식하고 넘어가자. 또한, 'new'라는 것에서도 계속 B 얘기 맞추나 확인하셔야 한다. 주어진 문장은 A에서 B로 전환하는 문장이니, 이미 B 얘기를 하고 있는 2번 뒤에 나올 수 없다.

(③(29%)) Why all the fuss over their(B) introduction?

왜 그 상품들의 도입에 떠들썩한 것일까?

선택 또 their에 민감! 하자. 앞 문장의 뭘 가리키는 것이죠? 'soft or chewy cookies.' 문제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의문문임에 집중하시고, 이 다음 문장에서 답을 줄 거란 걸 예상하자.

(④) Apparently much of their(B) appeal has to do with childhood memories of sitting on the back steps devouring those melt-in-your-mouth cookies that were delivered by Mom straight from the oven, while they were still soft.

분명히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 뒤 계단에 앉아서 입에서 녹는 쿠키를 게걸스럽게 먹던 / 이 쿠키들은 아직 부드러운 상태에서 엄마가 오븐에서 바로 가져다 준 것이다.

선택 their가 B의 논리로 계속 이어짐을 확인하자.

(⑤) This emotional and sensory appeal of soft cookies is apparently at least as strong as are the physical cravings that the product satisfies.

부드러운 쿠키에 대한 이런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매력은 / 겉보기에는 적어도 그 상품이 만족시키는 신체적인 갈망만큼이나 강력하다.

선택 this appeal이, 앞문장의 their appeal과 연결됨을 확인하자. 5번까지 지시어적으로도 AB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아까 세모 친 1번을 확정하면서 문제를 마무리하자.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지시어나 대명사보다는, AB(관점에 따라 PS ○○)의 논리로 전환되는 부분을 찾는 문제이다. 이 지문은 쉬운 편이라 무난히 풀었을 것이지만, '같은 논리로' 어휘나 내용이 어려워질 때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무난한 지문으로 잘 연습해 놓도록 하자.

A: 아이들을 나와 똑같이 보고 비판 < B: 아이들은 나랑 다르므로 칭찬

Vocabulary

1. remark(n)	9.	1. 말, 발언	9.
2. correct(v)	10.	2. 지적하다, 바로잡다	10.
3. stubbornness	11.	3. 완고, 완강함	11.
4. virtually	12.	4. 거의, 사실상	12.
5. better off	13.	5. 더 좋은, 더 나은	13.
6. look to V	14.	6. ~하려고 하다	14.
7.	15.	7.	15.
8.	16.	8.	16.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5.6.39(75%)

But no one, even your child, is exactly like you(A).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여러분과 똑같지 않다.

선택 But이라는 강력한 힌트가 있으니 감사한 주어진 문장이다. 앞 뒤의 대립성이 꼭 느껴질 것이다. 문장을 읽어보니, '아무도 너랑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가기에, 이 앞에는 내가 다른 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즉, '똑같다 vs. 다르다'의 AB 개념을 딱 잡고 언제 A에서 B로 바뀌는지 그 전환점을 찾으셔야 한다.

Parents often believe that they are providing help to their children when they constantly correct and criticize them(A), assuming that they will grow from these remarks. **But** ask yourself: Do you like being corrected? Do you grow when you are constantly criticized?

부모들은 흔히 믿는다 / 그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 끊임없이 자녀들을 지적하고 비판할 때, / 자녀들이 그러한 말로부터 성장하리라 생각하면서. / 하지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라: / 여러분은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 계속해서 비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성장하는가?

선택 첫 문장부터 A 냄새가 짙아 난다. 부모들은 '종종 믿는다' 즉, 부모들의 통념이다. 따라서 A 단어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읽어보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correct and criticize'한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correct and criticize'를 A라고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정답은, 이 A가 뒤집히는 곳이 되겠다.

(①) In truth, **we tend to stay the same(P)** when we are criticized(A).

사실,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에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선택 A의 문제를 드러낸 문장. 나는 언제 B로 바뀌는가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

(②) We want to defend what we have done, and our innate **stubbornness** refuses to permit us to accept the criticism(A) we are receiving.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방어하고 싶어 하며, / 우리의 타고난 완고함은 거부한다 / 우리가 받고 있는 비판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택 A 내용이 계속 이어짐을 확인한다. 문제 없다.

(③) Behind **virtually all criticism(A)** is the sentence "If only you were more like me(A), and living life as I see it, you would be a lot better off."

거의 모든 비판 기저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 "네가 더 나같았다면, 그리고 내가 인생을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선택 계속해서 A를 비판적인 뉘앙스로 보는 문장이 나온다. 현대 민감. 드디어 내가 AB로 잡은 개념이 나온다. '네가 나와 같다면..' 즉, '똑같다'라는 A 개념이 명확히 등장.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Praise your children for attempting a task(B)**, even if it was unsuccessful, and for taking risks.

어떤 일을 시도한 것에 대해 자녀를 칭찬하라, / 비록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칭찬하라.

선택 criticism을 까는 문장이 나오다가, 갑자기 '칭찬하라!!'는, criticism의 대척점에 있는 문장이 나온다. 또한 '명령문'이기 때문에, 필자가 강조하는 B 문장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이렇게 A하다가 역접 없이 B가 나오면 되나? 안 된다. 따라서 4번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but으로 A의 역접을 해주기도 하고, 3번 뒤 문장의 'if only you were more like me' 부분이, 주어진 문장 'exactly like you'와도 내용적으로 연결되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들어 맞는다. 답은 4번!

(⑤)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your children know that you are with them in their efforts(B), **rather than looking to criticize them(A).**

자녀가 아는 환경을 만들어라 / 자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노력에서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택 마지막 문장에서 아름답게 not A but B로 마무리 짓는 것을 확인하자. 괜히 평가원이 아니다.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주어진 문장에 논리, 지시 힌트가 넘쳐나게 있고 지문 전개는 AB에, 논리적 단절로 정답을 만드니 아주 꼭꼭 챙겨가야 하는 강추 문제. 주어진 문장에서 로직과 지시 근거를 모두 챙기고 기억한 뒤, 3번에서 단절감을 느끼며 완벽히 확정하는 사고의 흐름이 중요하다.

A: 표시된 횡단보도, 사람들이 덜 조심 < B: 표시가 안 된 횡단보도, 사람들이 더 조심

Vocabulary

1. (un)marked	9.	1. 표시가 (안) 된	9.
2. motorist	10.	2. 운전자	10.
3. yield to N	11.	3. ~에 양보하다	11.
4. pedestrian	12.	4. 보행자	12.
5. considerable	13.	5. 많은, 상당한	13.
6. suspect	14.	6. 생각하다	14.
7. cautiously	15.	7. 조심스럽게	15.
8. unrealistic	16.	8. 비현실적인	16.

Interpretation & Comment

출처 2015.9.37(75%)

But **neither** are aware of **this fact** when it comes to **unmarked crosswalks(B)**.

그러나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둘 중 어느 쪽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선택 주어진 문장에 but이 있으니 또 감사하다. 정답 선지 앞 뒤 문장의 명확한 대립성이 느껴질 것이다. 또한 이 문장은 주어진 문장의 해석과 힌트 파악도 너무나 중요하다. 우선 'neither.' 사람일수도, 사물일수도 있는데 동사를 보니 'are aware(알고 있는)'이니, 사람이겠다. 사람처럼, 두명처럼, 그리고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둘 중 누구도 몰랐다' 정도가 되겠다. 문장 앞쪽에 두 사람 대상이 나오는구나. 또한 this fact도 지시어로서, 이 문장 앞에 어떤 '사실 진술'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좀 더 AB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unmarked crosswalks(표시가 안 된 횡단보도)'도 AB로 느껴질 수 있다. '표시가 안 된 것 vs. 된 것' 이렇게. 평가원 문장삽입 기출 문제를 통틀어서, 아는 게 많을수록 가장 끌어낼 것이 많은 문장삽입 주어진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 문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주어진 문장을 머릿속에 박고, 지문을 들어가자.

Studies do show that **motorists** are **more** likely to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A)** **than** at **unmarked crosswalks(B)**. **But** as **some researchers** found, **that(A)** does not necessarily make things safer.

연구들은 보여준다 /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보다 표시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이 알아냈듯이, / 그것이 반드시 상황을 더 안전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선택 'than!!'을 보고 첫 문장부터 AB를 할 수 있다. 아 기존에는 표시가 된 횡단보도가 표시가 안 된 횡단보도보다 좋았다는 연구가 있었구나. 이미 주어진 문장에서 표시가 안 된 횡단보도를 B라고 잡기도 했고, A라고 해서 더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니, 표시가 된 걸 A로, 표시가 안 된 걸 B라고 잡자.

(①) When **they** compared the way pedestrians crossed at both kinds of crosswalks on roads with **considerable** traffic volumes, they found that people at **unmarked crosswalks(B)** tended to look both ways more often, waited more often for gaps in traffic, and crossed the road more quickly.

그들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두 가지 종류 건물목을 보행자들이 건너는 방식을 비교했는데, / 그들은 알아냈다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목에서는 사람들이 도로 양쪽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 / 교통이 끊기는 순간을 더 자주 기다리고, / 길을 더 빨리 건너는 것을.

선택 가볍게 they가 앞 문장의 some researchers임을 확인해주고, 콤마 뒤, found 뒤, 즉 결과를 알려주는 쪽으로 눈을 돌리자. 읽어보니 역시나 unmarked(B) 횡단보도가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한다. 통념을 뒤집는다. 아직은 지시/논리적으로 문제 없다.

(②) Researchers **suspect** that **both drivers and pedestrians** are **more aware** that **drivers** should yield to pedestrians in **marked crosswalks(A)**.

연구자들은 생각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다고 / 표시가 있는 건물목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 약간의 화제 전환이 일어난다. 이제는 '안전이' 아니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A의 경우에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엇!? 주어진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주어진 문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 neither에 해당하는 '두 사람 대상'이 등장하고, aware는 동사가 일치하며, A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니 주어진 문장에서 But을 때리고 B에서는 모른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 완벽하다. 3번이 답이 아닐까 90프로 확정하시고, 3번 뒤 문장도 보며 100% 확정해보자.

(③) **Not knowing traffic safety laws**, it turns out, is actually a good thing for **pedestrians**.

교통안전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알고 보니, 보행자들에게 실은 좋은 일이다.

선택 논리적 단절성이 확 일어난다. 왜? 이 문장의 주어는 '교통안전 규칙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 얘기는 앞 문장에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앞 문장은 'aware(안다)'였거든. **아예 반대의 얘기니 gap을 느끼고, 주어진 문장을 넣으니 모든 게 들어 맞는다. 3번으로 거의 100% 확정한다. neither는 drivers and pedestrians였고, this fact는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But 앞뒤로 marked와 unmarked도 아름답게 대조된다. 따라서 답은 3번!**

(④(11%)) Because **they** do not know whether cars are supposed to stop, they act more **cautiously**.

보행자들은 자동차가 멈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선택 they를 보행자(pedestrians)로 받는 데 문제가 없고, 보행자들이 unmarked에서 더 조심한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⑤) **Marked crosswalks(A)**, **by contrast**, may give pedestrians an **unrealistic** picture of their own safety.

그와 대조적으로, 표시가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비현실적인 모습(생각)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선택 마지막에 by contrast로 B에서 A로 바뀌주며, 지문을 마무리한다. AB 문장을 대조 표현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품인 문장 문제였다.